

옥수수 빵

강나루



소개글

방과 후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가고 없는 텅빈 교실.

우등생 다섯 남아 팔십명 받아쓰기 시험지 채점 한다.

—애들아, 허기지지? 빵 들 먹고 하려무나

—아뇨, 배 안고파요 집에 가서 먹을래요.

애들은 애오라지 한사코 그 빵을 아꼈다.

집에 가져가면 몇배 몇첩배 맛있는 걸...

목차

1 001

4

행진곡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국민학생이 되어 제일 처음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행진곡을 음악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깐 제대로 된 노래는 스피카에서 들려오는 LP 잡음 소리 그대로 들리는 행진곡이 처음이었다.

나 말고도 당시 누나 형 동생이 처음 접수한 노래도 행진곡이었다. 기상 나팔 소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제목의 행진곡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콧노래로 흥얼거리던 노래이고 우아한 문화라고는 거의 없는 세월이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면 모두들 운동장에 집합 한다. 얼마나 정겨운 노래 소리인가?

심지어 어느날 네발 달린 전축을 처음 집에 들여다 놓고 형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안다고 총장으로 가서 사온 음반은 기상 나팔부터 각종 행진곡이 담겨진 전축 판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구동성 다들 부드러운 음악을 원했다. 그래서 귀한 돈 다시 타서 본정통 가 사온 LP 판은 당시 유행이던 남진의 ‘가슴 아프게’였다.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떠나가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 매여 운다.”

아버지는 그날 밤 술이 많이 취하셔서 돌아오셨는데 손에는 뜻밖의 레코드가 들려있었다. 그것도 2장씩이나. 그런데 전축에서 나온 소리는 좀 묘했다. 가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경음악으로 편성된 댄스 음악, 지금으로 말하면 카바레 무드 조성용이었다. 아마 단골 술집에서 가져오신 모양이다. 아무튼 우리는 그 때 점심 시간에 소방서에서 들리는 오포 부는 소리와 학교 스피커에서 들리는 행진곡 소리로 시각을 거의 알아 차리곤 했다.

당시 총장으로 4가 지금의 총파 바로 위 골목에 문화방송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어린이를 위한 시간이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이 우리 반 푹푹하고 초롱초롱한 애 셋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신다.

“문화방송에 가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데 학교 대표로 너희들 셋을 뽑았다.”

“예? 방송이요? 방송국에 가서 직접 연주해요?” 그때 방송은 거의 생방송이었다. 실수하면 그대로 방송돼서 되돌릴 수 없다.

“록인이 너는 하모니커. 성진이는 피리, 그리고 철영이는 멜로디언. 이렇게 하나씩 연주하고 마지막으로 합주를 하나 하는데... 하모니카는 따오기. 피리는 섬집 아기, 멜로디언은 고향의 봄을 연주해라. 합주는 뭐로 할래?”

아무튼 선생님은 당시 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악기를 연주하는 연구 수업도 하셨다. 그리고 해마다 열리는 지방신문 주최 호남예술제에 우리 반 전체를 동방극장 무대에 세우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생방송은 난감했다. 모두들 생애 처음 서 보는 무대. 셋은 망뚱말뚱 서루 쳐다보다가 이윽고 정답을 토한다.

“셋이서 할라문 서루 잘맞아야 하자너유. 제일 쉽고 잘 맞출 수 있는 건 우리 셋다 잘하는 행진곡이지요.”

스튜디오의 아나운서가 “다음은 우리 서석초등학교 학생들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들려주실 우리

서석 어린이들의 연주곡은 무어죠?”

“네. 행진곡입니다.”

“무슨 행진곡이죠?”

“네. 그냥 행진곡입니다.”

“무슨 행진곡이라고 이름이 있을건데요? ‘

“땀따다 따라라 행진곡입니다.”

“도도도 도시라 쏘미쏘미 행진곡입니다.”

“???, 그럼 잘 연주해주세요..”

그날 우리는 출연 댓가로 문화방송 스탬프가 찍혀진 노트와 연필 1다스 썩을 받았다. “행진곡 이름을 알아야 면장하지. 망신만 샀다야”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그때사 인터넷이 있길하나? 누가 친절히 가르쳐 주길 하나?

이제야 검색해보니 미국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존 필립 수자가 특히 행진곡을 많이 작곡해 앨범을 냈는데 그 LP판을 각 학교마다 틀어 댔던것이다. 그는 ‘행진곡의 왕’으로 불리며, 튜바를 개량하여 수자폰을 고안하기도 했단다. 우리가 들었던 행진곡은 1. Stars And Stripes Forever 2. Semper Fidelis 3. Washington Post 4. El Capitan 5. Manhattan Beach 6. The Invincible Eagle 7. The Liberty Bell

그 후 자라면서 군대가서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나고 행진곡에 맞춰 분열 열병하고고 제대 후 듣는 행진곡 중에서는 역시 '결혼행진곡'이 최고였다. 낭만적인 멋과 우아한 아름다움이 특징인 이 행진곡에서 우리는 비로서 사랑에 눈뜨고 문화가 무언지 알게됐다.

우리의 골목대장들은 80년에 이르러 전남대학교에서, 도청앞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행진곡을 부른다. 가슴이 찢어지고 뜨거운 땀이 뻘뻘이 흐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서석동

카도집을 돌아 무등산 아래 조선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은 나의 구역, 일본말로 나와바리이고 결혼하기 전까지 나를 키워준 보금자리요 요람이다. 어릴적 공고 강당 너머에는 무허가 건물이 두채나 학교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다.

우리 집에서 한 집 건너 골목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탁순이 집이 있었다. 집 앞에 우람한 오동나무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 친구 인록이 등등이 중학교 때 농구하러 조대 운동장으로 종종 걸음을 하기도 했다.

그 골목 막다른 곳에는 종권이 집이 있었다. 종권이 집은 엄청 크고 넓었다. 더구나 티비 전축 케이스를 직접 너른 집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놀 유리나 합판이 많았다. 종권이 아버지는 동방극장 앞에서 ‘영미사’라는 전축집, 지금의 하이마트를 경영했다.

종권이 집에 가면 8살 위의 종일이 형은 요즘같은 겨울이면 눈덩이를 뭉쳐 필드 하키채를 휘두르곤 했다. 그리고 누나들은 피아노를 치고 우리 집에는 아직 없는 백색 전화기가 부럽기도 했다. 부자이기도 했고 나에게 없는 누나 여동생들이 많아서 무척 부러웠다.

종권이 아버님은 일찍 암으로 돌아 가셨다. 그리고 그네 식구들은 이사를 갔다. 그 팔린 집이 너무도 넓어

아마 일곱채인가 새로운 집들이 생겨났다. 종권이는 일고 야구가 전국대회 진출하면 야구부들을 진두지휘하고 서울로 온다. 동창회에 전화해서 선수들 회식시켜주란다.

골목을 나와 다시 꺾어지는 카도집이 병식이 집이다. 병식이는 화순역 앞 도웅리가 고향이다. 그곳에서 아버지 엄니가 농사지으시고 복숭아 과수원을 일궜다. 광주 집에는 할머니와 고모가 있었고 동생들도 하나씩 광주 유학길에 나서 우리 동네로 온다.

국민학교 5학년때인가? 나는 한시도 떠나본적이 없는 부모님 곁을 떠나 병식이가 여름방학 화순 집에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나섰다. 기차가 남광주를 출발해 효천 앵남을 지나 화순역에 다다르기 전 속력을 줄이자 기차에서 뛰어내려 논밭길을 따라 갔다. 역에서 내리면 엄청 멀어서 그전에 내린 것.

해가 있는 동안은 그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먹고 즐거운 한나절을 보냈다. 복숭아 털이 이곳저곳을 괴롭혔지만 달고 맛있는 과일은 나를 하냥 즐겁게 했다. 그러나 해가 지려고 할때 나는 그만 엄니가 그리워졌다. 혼자 과수원 한 쪽에서 웬지 모를 눈물이 나와 한참을 서성여야 했다.

매일 아침 도내기 시장에서 먼저 출발한 용훈이가 병식이를 부르고 그 둘이 우리 집에 와서 “진성아, 학교가자.” 고라면 우리 셋은 정래 사는 공고 담벼락 골목길을 따라 서석정미소 서석옥을 지나 경향양복점을 지나 충장로 1 2 3 4 5...

병식이 집을 나와 올라가면 구멍가게가 있고 네거리 한 귀퉁이에는 이발소, 건너편에는 목욕탕이 있었다. 그리고 또 커브를 돌면 희재집. 그의 집은 희한하게 달구 새끼들과 강아지가 키워지고 있었다. 희재 어머니가 반기며 내주시는 따뜻한 달걀 가끔 먹었다.

희재 아버님은 지금은 없어진 당시 전남매일신문 편집국장을 거쳐 부사장까지 하셨다. 그러다가 국민학교 졸업 무렵이나 될까?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다. 희재는 몸이 부실해서 우리 같이 학교 다니다 일년 풀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50회 졸업이지만 동창회는 기거이 그를 환영했다.

희재집 옆으로 전남일보 사장 김남중씨 집이 있었다. 여기에 종성이가 살았었는데 우리 어릴적 같이 놀았다. 종성이는 우리보다 1년 빨리 입학해 고등학교때 용산고 농구 선수로 갔다. 야구 유니폼 미트 글러브 공 방망이가지 준비해 야구 많이 했다. 종권이와 종성이는 사촌이다. 그리고 그 집 길 건너에 박철웅 조선대 총장이 살던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동네는 아무튼 신문사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도집

갈라지는 모퉁이에 있는 집을 흔히 ‘카도집’ 이라 한다. 일본어 발음대로라면 ‘가도’ 가 옳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카도’ 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엔 커브를 돈다는 미국 말을 생각해 낸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명 일본말 가도가 한국에 와서 카도가 된게다. 우리집은 가도집 커브집 아닌 카도집이라고 불렸다.

“누가 또 사고 쳤냐?”

동네 아낙네들이 갑자기 삼삼오오 몰려들어 물어오면 으레 정답은

“저기 아래 맨 첫 집 카도집 머시메들이요.”

그렇다. 가지 많은 나무 밭 잘 날 없었다. 그 집 앞 하수구 도랑은 비가 온지 오래되면 늘 칙칙했다. 그 하수구를 막아 녹강을 묻고 대문을 들락거린다. 올라리는 카도 돌기전은 적색 벽돌. 그리고 카도 돈 다음에는 아직 판자 그대로였다. 거기집의 아들들만 넷은 겁나게 부잡했다.

빠그덕 대문을 들어서면 노란 부고장이 그 위에 덩그마니 혼자 앉아 있었다. 예전에는 부고가 오면 방안으로 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노란 편지는 언제나 대문위에 얹혀있다가 어느 날 슬며시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판자 밑으로 텃밭아닌 우리의 웅색한 정원에 철따라 고운 꽃들이 피고 지고를 거듭했다.

마루치고는 엄청 높고 그 곁이 크지만 우아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은 마루에 얼마나 먼지가 쌓이던지 어머니는 그 먼지를 닦아내는걸 무척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나도 가끔 할 일이 없을때 마루를 쓸고 닦아내는 범생이 되기도 했다.

“오늘따라 누가 이렇게 고운 짓을 해부렀다냐? 성진이 니가 했냐?”

“예, 나 이쁘지?”

그러나 그 시대의 불문율은 부엌일은 절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자들은 밑에 동생 업고 다니기. 설거지 하기, 걸레 빨기 등 어린 시절부터 손에 일이 끊이지 않았다. 마루를 올라가기 힘들어 댕돌이 놓여있었다. 그 댕돌에 올라가 신을 가지런히 벗어 놓고 정돈이 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항상 방안의 아이들을 모두다 나오라고 해서 신발 가지런히 벗는 법을 항상 교육시키시곤 했다.

“자 봐라. 먼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른다. 그리고 나서 신발코가 앞을 보도록 돌려놓는다. 셋째 니는 항상 보면 왼발은 여기, 오른발은 심이 센끼로 저기 저쪽에 있어야.”

그리고 먼저 우리들의 방에 들어가면 책상이 멋진게 있다. 형, 장남의 책상은 지금 책상 못지 않게 크고 화려했다. 그리고 나부터는 얹은뱅이 책상이었다.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으나 책가방 내려놓고 얹은뱅이 책상에서 숙제부터 하던 그때가 그림고 다시 돌릴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욕쟁이 남자 선생님이 말 안듣는 아이들을 향하여

“야. 말썽쟁이. 도무지 말릴수가 없구나. 왜 그리 말을 안들어쳐먹는다냐. 참기름 서말만 있으면 다시 나온 구녁으로 확 쳐 넣어볼놈아.”

아하 참기름 서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가고도 싶은 날들이다.

숙제를 마치고 안방으로 가면 아랫목에는 언제나 이불이 덮여져있고 그 안에는 때로 식지 말아라고 밥이

한 두 그릇씩 숨어있곤 했다. 지금이사 보온 밥통이 있지만서두... 그리고 윗목으로 차츰 차츰 전축이며 티비며 전화기며가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하나 자리잡기 시작했다.

안방에서 정제, 부엌으로 통하는 조그마한 광과 대청마루로 통하는 문이 나있었는데 대청마루에는 옷장과 단스라고 불리우는 긴 서랍 모음과 철따라 음식들이 숨겨져 있었다. 식혜며 홍시감이며 아니면 미숫가루, 올벼쌀이며가 항상 어디에 어머니가 숨겨놓는가를 잘 알아야 형제간들 모래 나 혼자 독식할 수 있었다.

부엌으로 내려서면 항상 매케한 연탄가스가 은근히 우리에게 다가 왔는데 추운날 아침이면 동네 소란이 다 연탄에서 나온다.

“저기 골목 두 번째 집 며놀아가 연탄가스로 자살을 하려다 전대병원에 실려갔다.”

“저 아래 초가집 남매가 연탄 가스에 중독됐는데 금세 싱건지 국물을 먹고 그만저만 해서 병원 신세는 면했다.”

아무튼 어머니는 그 연탄불에 밥짓고 반찬해서 우리 여섯식구가 먹고 사는데 하루 세끼 몇십년을 밥상 들어 올리느라고 고생하셨을걸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금의 여자들이사 월매나 편한가. 그래서 흔히 호강에 초쳐서 그런다라고 입에 달고 살았다.

부엌을 나오면 벽돌로 지은 건물 아래 한쪽이 창고, 이곳에는 항상 시골에서 올라온 쌀가마와 고구마 자루 같은게 어둠속에 숨어있었다. 전기가 부족한지라 창고에는 조명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집만의 아담한 목욕탕이 있었다. 그 아래 장작을 때서 일요일에 목욕을 할라치면 온 동네에 연기에 묻혀 날아가는 검댕이 둥 둥 떠다녔다.

그리고 그 앞으로 수돗물을 받아두는 큰 물통과 빨래터. 우리는 겨울이면 아침마다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씩 배급받고 얼굴을 씻었으며 치약이 없어 소금으로 양치질 하곤 했다.

간장이며 고추장이며 된장 같은 것을 담궈두는 항아리는 올망졸망 예술이었다. 어머니는 이 장독 단지를 신주 모시듯 하였다. 하기사 장 맛 좋고 어머니 솜씨좋은 내력은 모두가 여기 장독에서 나왔으리라.

종소리

그때는 얼마나 운동장이 넓었는지 학생수가 만명에 육박하다 드디어 만명을 넘었다고 소문이 난 학교였다. 전쟁이 끝나고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당시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던 대도시의 제일 큰 학교, 전통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다.

매일 낮 12시면 아침반 오후반 교대를 할 겸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한다. 4학년까지는 교실 한 칸을 한 반에서 차지 할 수 없어 오전 오후로 나뉘는데 교실 이어받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일 낮 운동장에 모였다.

그날은 월요일인지라 체조 잠깐하고 학생 대표가 나서 이번 주 ‘우리의 목표’를 낭독하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에 이어 어린이 신문에서 주최한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형과 누나들이 앞으로 나와 시상식을 치렀다. 그리고 지루한 운동장 모임은 막판으로 치달았다. 마지막 교가 제창에는 모든 아이들이 힘차게 씩씩하게 입맞춰 노래 했다. 반주라고는 없이 그냥 돼지 먹판듯한 우렁찬 군대식 합창이었다.

‘아침 해 돌아오는 무등산 아래 터전도 아름답다 우리 학교 무등산 종소리 들린적없이 역사도 아름답다 우리학교 노래하자 서석 즐거운 서석 우리들 자라나는 은혜의 집.’

그리고 나서 으레 그랬듯이 행진곡이 울려 퍼지면 모두들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절반은 교문으로 가서 파하고 절반은 교실로 가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시끄러웠다.

“김선생, 행진곡 끄고 마이크 올려요.”

대머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퇴장할 시간에 뜬금없이 다시 높은 연단에 올라와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이크 앞에 섰다.

“교가를 제대로 불러야지. 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내가 듣기에는 무등산 종소리 ‘들린적없이’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많아. 무등산 종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 ‘끊인적없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향해 또 무섭게 호통친다. “오늘부터 각 반은 교실에서 교가 제대로 부르기 연습을 해요. 무등산 종소리 끊인적없이...”

그러나 아이들은 술렁거렸다. 분명 각반에서 선생님이 가르켜 준것도 아니고 선배들이 부르면 따라 불렀는데 무등산 종소리 들린적 없이가 맞지 않아? 좀 조숙한 6학년 형과 누나들은 수군댄다.

“맞아 무등산에서 어떻게 종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냐? 무등산 종소리 한번도 들린적 없다.”

무등산을 바라보며 개구쟁이 하다가 그 품안에서 자라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은 옷에 손수건을 걸고 다녔다. 코가 흘러내리면 얼른 손수건으로 훔쳐내라는 어머니의 추상같은 명령이었다. 무등산 종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은 교가 전문 작사 선생님의 작사를 이해 할 리 가 없었다. 당시 이 선생님은 우리나라 초 중 고 대학 교가의 80% 넘는 작사를 했다고 한다. 물론 서울에서 산 이름 강 이름만 알으켜 달라고 해서...

“무등산에 눈이 세 번 오면 우리 동네도 눈이 온단다.”

오로지 이 말만 듣고 자랐다. 거기에 서석대가 있고 입석대가 있고 서석국민학교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서석동 17-3번지가 왜 있는지? 서석교회가 있고 서석목욕탕이 있고 서석문구점이 있고 서석자전거포가 있고 아이스케키 만드는 서석옥이 있고...

그리고 형들 누나들이 다니던 이웃 광주공고와 광주여고에서도 교가를 부를라치면 무등산 어찌고 하는 구절이 어김없이 있었다. 대머리 교장 선생님은 엄격하셨다. 6년 졸업할때까지 여러 교장 선생님을 모셨지만 이렇게 교가 똑똑이 부르라고 호령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이었다.

그때 교가 가사를 우기며 고게 맞다고 고집하던 누나는 지금 할머니가 되었다. 어느날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모처럼 모여 식사를 하고 나서 그녀는 “애들아 우리 모였으니 교가나 부르자”고 통큰 제안을 했다. 그러자 모두 놀라 주목했다.

“아니 여지껏 교가를 안 잊고 있었던 말야? 우리 모두 잊어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럼 네가 한번 불러봐.” 그러자 주인공은 의기양양하게 일어나 손뼉에 맞춰 열창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자 모두들 하나같이 박수를 쳤다. "애는 학교 다닐 때에 공부도 잘하더니 기억력도 참 놀랍네. " 칭찬을 받은 주인공은 집에 돌아와 의기양양하게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내가 혼자 독창했다고..." 이 소리에 남편도 깜짝 놀랐다.

"아니 여지껏 교가를 안 잊었던말야? 어찌 불렀는지 다시 한 번 해봐요." 그러자 신난 그녀는 또 벌떡 일어나 아까와 같이 용감하게 불렀다. 그러자 할아버지 "어, 이상하네!! 우리학교 교가와 똑같네."

인연

국민학교 다닐 때 사랑을 느꼈다면 그건 좀 되바라진 놈, 까진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꼬맹이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왜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없다고, 전혀 안생긴다고 우기면 뭘하나? 중간 놀이 시간에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가운데 그때의 여학생들이 유독 고무줄 넘기를 많이 했다. 경제적이고 자유 분방하고 운동하고 허리 날씬해지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강충강충 뛰며 고무줄을 넘으면 살금살금 다가가 면도날로 한쪽을 끊어 도망가고 나중에 그것도 기술이라고 두명이 한조가 되어 양옆을 동시에 끊어 버리고 도망가서 지 누나나 동생에게, 아니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장물을 넘기기도 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백두산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나 대한남아 가는 길 짠하다 짠해 나아가자 나아가 한 발 밟기 한 발 밟기 두 발 밟기 두 발 밟기

아마도 남자애들이 별로 맘에 안들어서 대한 남아 전체를 격하시키는 가사로 바꿨음이 분명하다. 고무줄 놀이하던 여자애들의 몸 동작은 지금 김연아 같은 피겨 선수나 체조 선수 못지 않는 유연하고 가볍고 날렵했다. 어쩜 그렇게 높이 멀리 강충강충 잘도 뛰어 오르는지?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어느때든 놀이가 가능했고 그들을 괴롭히는 남자 아이들을 따라가며 나 잡아 봐라 놀이를 하던 정겨운 우리들의 운동장은 비만 안오면 매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되었다.

고무줄에 의지해 자라던 여학생들에겐 정말 즐거운 놀이였다. 친구가 없어도 혼자서 양쪽 나무에 고무줄을 걸어놓고 놀 수가 있었고 둘이어도 좋고 셋이어도 좋고 넷이어도 좋고 시간만 나면 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놀이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고무줄 하던 여자애들 사이로 안보이던 예쁘장한 아이가 치마를 펄럭이며 리듬을 타고 있었다. 그녀는 눈 부셨고 다리 아래로 희끗희끗 보이는 속살이 복사꽃처럼, 벚꽃처럼 하얀 것이 이내 꼬마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옷도 지금까지 본것과도 다르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세일러복. 해군들의 외출복 이란다.

순간 면도날로 오려내어 고무줄을 끊고 재빨리 토끼는 계획은 취소하고 친구들에게 내 마음 들킬까봐 벤 소에 오줌 싸러 간다고 핑계대고 슬며시 그애를 빙빙 돌며 지켜본다. 친구들에게 그네들에게 안들키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철봉에 매달려 노는 척 주위를 빙글거리며 오직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철봉에 거구로 매달려 보는 그녀는 신비로운 나라의 공주님 같고 언젠가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던가 말던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았다.

그런데 사고는 몇일 후 오후에 나고 말았다. 나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이 엄청나게도 부잡한데 고놈 눈에도 그애가 띄었던 모양이다. 피는 못속인다고 보는 눈은 비슷한 모양이다. 그날은 마침 지금과 같이 온갖 꽃이 다투어 피는 봄날 이었다. 어머니는 집안 화단에서 새로 피어난 꽃들을 살피고 계셨는데 동네가 시끄럽게 좀 떨어진 이웃 여자가 한달음에 달려와 항의하는 것이었다.

“아줌마, 댁의 아들 거 3학년 다니는 놈 있죠. 그놈이 우리 딸들을 엄청 괴롭히네요? ‘

“뭘 어떻게 괴롭히는데.?”

“졸졸 딸아다니기를 하지 않나. 띄기 국자 사내라고 조르지 않나.”

“그래서요.”

“지 맘에 안든다고 아무도 안보는 줄 알고 우리집에 돌던지고 달아났어요”

“그래 사람은 안다쳤수?”

“사람이사 괜찮지만 유리가 한 장 깨졌으니 물어 내셔야 하겠네요.”

아. 다 틀렸구나. 나의 사랑은 한마디로 동생의 어이없는 훼방에 의해 바로 파토나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 은행 높은 양반집인데 딸만 여럿인 딸 부잣집이고 교대부속이던가 어디던가 다니다가 모두 우리 학교로 전학해온 것이었다. 그래서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집 딸들이 우리 집 아들들하고 거의 터울이 같았는데, 잘못하면 합동 결혼식 올릴뻔 했다. 고놈의 돌맹이 하나로 모든게 끝장 나버린 것이다.

나는 그날부터 삼삼하게 떠오르는 세일러복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가슴앓이를 몇날 며칠 했다. 해군 수병들의 제복을 본떠 만든 등에 네모진 깃을 드리우고 삼각으로 접은 천을 가슴에서 묶게 만든 브라우스 하얀 웃옷. 거기에 봉긋이 솟아오른 수줍은 가슴. 흰 칼라의 세일러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항상 내 마음

에 빙글빙글 돌았다. 눈을 감아도 삼삼하게 그녀가 보이고 다만 헛것일 망정 그녀는 귀엽고 신선했다.

몇 년전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 경영하는 꽃가게에 놀러간 적이 있다. 동창생 녀석은 자기 마눌을 소개했다. 그건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광주는 좁아서 족보를 따지면 모두가 사돈의 팔촌이다. 중얼거리며... 그날 밤 나는 비엔나 소년합창단을 티비에서 보고 그 봄날의 그녀를 상상해 냈다. 그녀의 옛된 모습과 맑은 목소리, 그리고 세일러복.

옥수수 빵

방과 후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가고 없는 텅빈 교실. 우등생 다섯 남아 팔십명 받아쓰기 시험지 채점 한다.

—애들아, 허기지지? 빵 들 먹고 하려무나

—아뇨, 배 안고파요 집에 가서 먹을래요.

애들은 애오라지 한사코 그 빵을 아꼈다.

집에 가져가면 몇배 몇첩배 맛있는 걸...

—누나, 옥수수빵 가져왔어? 얼른 줘.

가난한 시절 누나도 동생도 그 재미로 살았다. 각다분한 엄마 아빠보다도 맛 좋은 빵 가져오는 누나가 더 기다려졌다.

채점을 마치고 학교 정문을 나서려는데

—야 니네들 빵 받아왔지? 이리줘!

고아원 애들이 떼거리로 달려들어 험상궂게 쪼린다. 그 가운데 반장이 체면 차리려 나서는데

—오늘만이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

빵 한개를 내어주고 벌레 씹어 먹은 얼굴로 잔달음치며 집에 온다. 동생은 누나가 왠지 시무룩하여 찻잔이지만 그래도 빵이 좋아 시치미 떼며 조른다. 누나는 동그마니 리쿠샤쿠 맨아래 숨겨진 윈내나는 방을 꺼낸다.

며칠 후 험상궂은 걸태질 고아 애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그날 누나는 배터지게 먹으라며 으쓱으쓱 어깨를 올렸다.

—웬 두개씩이나 주는거?

누나가 우윳가루 더운물에 개어주며 말했다

—아 고소하다. 암생이 고놈 들 낼은 학교 못오겠쥬. 고아 애들 쓰레기통에 박힌 썩은 개차반 소태빵 주었지.

누나와 나는 우윳가루 개어 목 적서가며 무등산 바라보며 흥겨운 합창을 내지른다.

—노래하자 서석 즐거운 서석 우리들 자라나는 은혜의 집

상하방

“우리 집 셋방 살던 김중령은 잘 살고 있을까요?”

어머니 돌아 가시기 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릴적 시절을 살짝 정리한다.

“몰러. 그 후로 대군이 갔다가 제대했는지.”

“그 집 딸래미들이 꽤나 이뻐는데요...”

“응 수나 지나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대문 왼쪽으로 가면 우리들의 보금자리이자 플레이 그라운드였지만 오른쪽은 당시 전세 혹은 월세를 받

고 내주는 타인들의 공간이었다. 본체에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상하방이라고 일컫는다. 왜냐면 세 오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거기 머물르면서 큰방을 반으로 쪼개 미닫이를 두어 웃방 아랫방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늘 그랬지만 아래에서는 부부가 생활을 하고 웃방에서는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집단 수용되는 그런 형태였다. 1-2년을 주기로 드나드는 전세방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기로도 엄청 부류가 다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은 경찰 의사귀를 단 사람이었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다.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기 위해 그 아버지는 우리와 같이 도청 옆, 후에 노동부가 된 자리에 있던 시립 도서관에 다녔다. 진급 시험을 위해서다. 우리와 같이 공부하러 다니는 아저씨. 그 아들 딸들은 이사 간 후에도 우리와 엄청 가깝게 살았다. 먼 훗날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근학이 엄마였다.

또 육군 중령이 살았던 적이 있다. 군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거나 멀리 나가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자하고 정이 많았던 군인 아저씨라고 우리들도 무척 따랐다. 그 뒤로 소식을 모른다. 물론 광주를 떠나 대구로 가셨다는 후일담도 벌써 40년전이니까...

마누라와 자식을 둔 스님도 이사 왔다. 한 일년쯤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분도 집에 자주 나타나 질 않았다. 허기사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라니까 전세를 얻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산 속 절로 가서 수행을 하고 오랜만에 한번씩 집에 들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밖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 방을 거쳐갔다. 그리고 전세방 앞은 항상 빨래를 널어 놓았던 공간이었다. 장대가 높이 솟아 있고 빨랫줄이 짝 뻗어 있는 거기에는 우리집과 전세방 사람들의 빨래가 하루도 빠짐없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독립된 외판채가 있었는데 방 하나에 부엌 그리고 WC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은 전세나 월세를 받지 못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와서 진을 치는 그러한 장소였다. 아버지 형제간 이 여섯분. 그리고 조카 들. 그 외 사돈의 팔촌까지 광주에 진학하거나 일 보러 오면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럼 그때 광주에서 집간개나 장만한 사람은 아버지 뿐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귀한 방을 내어 주곤 했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모두들 시골에서 우리집 안거처간 사람들이 거의 없다. 집안 대소사는 모두 어머니의 철저한 계획과 시장보기, 그리고 장만, 행사 당일의 분주한 어머니 모습, 다 이런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야기되어 앞 뒤를 맞춰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큰 존경을 받았는지 드러난다. 재미있는것은 나중에 보니까 친척들은 거의 동시에 늙어 간다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항렬에 따르면 바로 밑 인데 나이로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다가 어머니는 친척들이 잠시 뜸한 사이에 본격적으로 그 방도 세를 내어 놓기로 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방에는 애들이 없는 신혼부부나 과부나 아니면 총장로에서 술집에 나가 돈버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엄청 재미있어지는 거다.

가끔 밤에 화장실에라도 갈라치면 빨래줄 밑을 지나 아래 쪽방 부엌 건너 칩간에서 쪼꾸려 앉아 밀어내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상한 신음 소리 같은게 빠져 나오는게 아닌가? 처음에는 힘쓰느라, 나중에는 신문을 열심히 부드럽게 하느라, 어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게 애 낳는 소리임을 깨달아 맨 날 늦은 밤에 화장실로 가고 뜬 생각이 난 것은 언제 쯤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끔 여자들의 속옷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마 그때 쯤일거다.

아무튼 남자들만 우글대던 우리집에 그래도 여자라고 들락거리던 셋방의 여러 사람들은 정말 걸음걸이부터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투 얼굴은 물론 이목구비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랐다.

관사

동명동은 단독 주택들이 줄지어 늘어서있는 부자 동네, 깨끗한 마을로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다. 서석초를 지나 동계천 다리 하나 건너면 동명동은 시작되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어른들의 대화를 나는 들었다.

"시장 관사가 중심에 떡 하니 버티고 있고 미국 문화원 원장 관사가 있으니까 조용하고 동네가 부자 냄새가 물씬 나네"

"우리 여기다 자리 잡아요. 그래야 아이들 학교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 될 수 있을거예요. "

남자는 아마 공무원인데 시골에 사나 보다. 아들 딸들을 위하여 동명동에 집을 한 채 마련해 유학 보낼 요령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여튼 남자는 하얀 반소매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절도있는 저고리와 치마에 양산까지 받쳐든 것으로 보아 내 짐작이 맞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일본 적산 주택 파란 대문 앞에 선다.

"정준아."

그러면 이층에서 뛰어 내려오는 그가 쿵쿵 소리를 대문 밖으로 까지 흘리며 우왁스럽게 빗장을 풀고

"인자 오냐. 어서 들어와"

그의 공부방으로 들어가기전 어머니께 이쁘게 인사하고 숙제를 해 치우는데 약 30분. 그리고 나면

"우리 숙제 다했어요. 이제 놀아도 되죠?"

그 집은 특이 했다. 밖에서 노는 것은 아예 없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화투를 용인하는 집은 그 집 밖에 없을 것 같다.

"민화투 쳐서 이기면 백에 한 대씩 때리기다."

그의 아버지는 전남대 공대 교수라고 했는데 산수 셈을 잘해라고, 일찍 감 잡으라고 화투를 용납한 특이한 집안이었고 분위기 었다. 아무튼 화투장을 돌리고 셈을 하고 마빡을 때리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가 지루하고 질리면 우리는 이제 동명동 군인 관사로 간다. 탕자나무 울타리가 정겨운 그곳에는 군인 계급장을 단 짚창들이 서 있었고 뽕나무 절도가 있는 분위기 었다.

"종구야, 우리 왔다."

그러면 바로 군인 졸병이 나와 빗장을 따고 방으로 안내한다. 한참 후 그 었던 까까머리 사내가 또 과자며 과일을 내 온다. 그때는 그가 장교의 당번병인 줄 모른다.

"저 사람 누구야? 니 삼촌이니? "

"아니. 올 아빠 졸병?"

"그래? 군인 아저씨냐? 머리는 짧은데..."

나중에 찾아 본 경향신문 1973년 7월24일자 六二五 動亂과 포로석방 秘話라는 연재에 보면 동명동 관사가 딱 한번 나온다. 1953년 6월17일 휴전이 되기 전 헌병 사령부 林(임)·韓(한)·李(이) 세 中領(중령)이 光州(광주) 시내 東明洞(동명동)에 있는 육군 관사 2호에 모여 마지막 포로 석방 작전을 세웠는데 장장 다섯 시간이나 소요되었다.

당시 광주에는 만 육백여명의 전쟁 포로가 있었는데 제 1 수용소가 광산 서창 상무대 비행장, 2 수용소가 서창면 벽진리 사월산, 3 수용소가 서창면 금호리.

헌병대는 이들에게 새벽녘에 동트기 직전 수용소를 열어줄테니 어서 달아나 30리 밖으로 도피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포로 석방의 구체적인 계획이 동명동 우리 다니던 관사에서 이뤄졌다니 조금 오싷한 기분이다. 그렇다면 그때 누구의 아버지도 헌병대 중령이나 대령 계급장을 단?

그래서 그런지 관사에 가까운 우리집에서 내놓은 전세 살이를 한 김 중령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도 생각한다.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상무대에 출근하던 그 아저씨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우리는 이제 군인 마을을 벗어나 지산동 파출소를 지나 사레지오 빨간 돌담이 나오기 전 좌회전, 골목으로 들어가 또 하나의 관사를 만난다. 조선대학교 직원 관사.

거기에는 공동 마을이라 대문이 항상 개방되고 우리 또래의 애들이 많이 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수영장을 찾아내 동계천으로 내려가거나 사레지오 여고로 놀러 다니곤 했다.

광주 사레지오 고등학교 창설자는 아르키메데스 마르텔리 신부다. 그는 이탈리아 출생으로 54년 우리나라에 와 56년 광주에 사레지오고를 세웠다.

나환자 시설과 불우한 촌을 돌아다니며 구제 활동에 몸사르고 값진 인생을 보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그때 교대 부국과 더불어 사레지오 부속 초등학교가 꽤 번듯하고 그랬는데 지금 커서보니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살레지오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부속 국민학교는 1963년에 개교했다. 우리는 62년 입학인데 한 해 늦게 개교한 탓에 지금 우리 동창 중에 살레지오 초등학교 출신이 없는게다.

다만 광주 서중 나와 사레지오 고 졸업한 르메이에르 선배와 임현식이라는 배우가 생각나는데 전북 순창 출신인 그는 광주 중앙초, 광주 동중, 사레지오고를 나왔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훈훈한 ‘한지붕 세가족’ 드라마에서는 순돌이 아빠 신화를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드라마를 제작한 우리 곁을 떠난 정인이 생각이 절실하다.

임현식은 언론인이었던 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북으로 취재를 갔다가 생이별.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북을 오가던 기자들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들었고 3남 1녀 자녀들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다 결국 사망 소식을 전하자 “그러겠지야” 라는 한 마디 말 외에 아무 말도 못 하시고 1년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단다. 가슴 아린 이야기 주인공들이 광주를 숨쉬며 총장로를 같이 오갔을 줄이야.

도내기 시장

“엄니, 오늘도 지산택 안왔씨요? 딸기 먹고 자폰디...”

“그러, 올때가 넘었는디 안오네, 이 오사할 망구탱시가.”

“내일은 올까요?”

“고걸 내가 우찌케 알긋냐? 때가 되면 다 기어 오것쥐.”

지산동 딸기밭에서 싱싱한 것만 주워담아 우리 집으로 가져다주는 지산택은 과일은 물론 생선까지 물 좋은 먹을거리만 잇을만하면 가져왔다.

“지산택이 안 오면 도내기시장이라도 가서 좀 사오제 그라요?”

“아녀 기다려봐.”

아마 엄니는 아버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로 맞춰서 물건 가져오라고 이미 주문해 뒀을꺼다. 우리보다는 엄청 천리안 만리안이시니까.

엄니가 동네 일을 꿰뚫고 여기저기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정치를 하고 다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네 아들 장래를 위해서다.

“옴메 기 살어.”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튼튼게 자라며 어느 정도 사고 안치면 그것이 제일 으뜸 목표였다.

“야, 니 운동화 다 떨어져 새로 사야것드라. 자 얼릉 따라 나서라.”

그래서 엄니 뒤를 졸졸 따라 좌로 기씨네 점방과 우로 담배 가게를 통과해 서석교회를 지나면 철로가 나온다. 기차가 지나가면 건널목 간수 아저씨 빨간 깃발에 신호 맞춰 기다렸다가 드디어 시장으로 진입한다.

여기서부터 사례지오 여고까지 이어지는 도내기시장은 왁자지껄 장바닥이다. 엄니 뒤를 따라 갔다가 금방 포기하고 나도 독립적으로다가 여기저기 주위를 돌며 구경하며 기다려야 한다. 엄니의 정치 무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울 엄니 말고도 많은 여인네들이 서로 붙잡고 뭔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만히 엿들어 보니 이건 과히 사투리의 천국이다.

저만큼 끝새를 보니 친정 동네 처녀와 시집간 아낙이 만난 모양이다.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엿들어 보니 두 여인은 술개를 본 암탉처럼 한동안 멀뚱한 눈으로 서로가 바라만 보고 섰다. 그러다가 달려가서 우악스럽게 손을 맞잡는다.

"오사허네. 아니, 이 잡것이 우썬 일이다냐?"

"아이고, 엠병 지랄하고 자빠졌네. "

"이 화상이 여태 안 돼지고 살어 있네."

"호랭이 물어가네. 요 잡것이 어찌자고 장바닥까지 까질러 나와갔꼬 여기서 만난다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흔들어도 반가운 마음을 다 풀 수 없어 서로가 등을 쓸고 두들기다가 풀어져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러다가 또 엉겼다.

오사, 잡것, 엠병, 지랄병. 입에 붙이기도 끔찍한 말들이다. 그러나 넘치는 정을 쏟아내는데 의미 따지고 체면 치레할 겨를 있는가? 그저 좋을 뿐인데. 둘 사이는 소꿉장난 친구이고 이웃인 모양. 그러다가 하나가 먼저 시집가서 그 맏다는 시집살이 애육살이를 견디고 있고, 또 하나도 머지않아 그런 시집을 가야 하는 형편인가보다. 그래서 둘이는 속에서 울컥 치달는 반가움과 느껴움의 덩어리를 길바닥에서 욕으로 쏟아낸 것이다. 그리하여 둘이 손잡고 곰비단비 장을 보고 난 후 해가 기울 무렵, 이제는 서로가 헤어져야 할 시간인가보다.

"가서 눈 질끈 감고 살어 이년아. 고추 시집 맏다해두 잠깐이어."

파마머리는 시집살이 어렵다는 친구의 등을 떠밀어 보낸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단발머리는 몇 걸음 가다 돌아서서 뺨히 바라본다.

"싸게 까질러 가. 호랭이 물어갈 년아. 또 만나지긔제 "

친구는 손사래를 치고는 치맛자락으로 콧물을 쥐어짜다.

나와는 상관없이 엄니는 이제 불일을 다 봤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가잔다.

"내 운동화는 어찌고..."

"맞아, 니 운동화 사러 왔지, 고걸 까 묵었네."

서둘러 집에 온 엄니는 다음 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대문 앞 조그마한 마당에 솔을 걸고 개장국을 열심히 끓이 신다. 나는 왜 엄니가 갑자기 개장국을 제조했는지 그 속 뜻을 몰랐다. 몇 해 전까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불때가며 국을 끓이셨는데...아마 도내기 시장에서 신문사 국장네 아들이 건강이 좀 어떻다고 들으셨던 것 같다.

몇해전 친구가 나에게 왔다. 서석동에서 같이 논 것이 1965년 전후.

"야 니 엄니, 그때 나 아프다고 개장국 한 그릇 치마 밑에 넣어 식지 말라고 가져다 주신 것 엄청 못 잊겠다."

그 친구가 췌장암으로 작년에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일주기가 아마 며칠 후 닥칠것 같다. 그 녀석 작년 요맘때 신촌 세브란스에 누워 그 때 그 일을 말하며 여윈 손으로 나를 꼭 잡고 악수 한 번 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벌써 친구 제삿날 행기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농장다리

“넓적아, 학교가자. 얼릉 후딱 나오그라.”

학생 쪽수가 철철 넘쳐 4학년이지만 오후반으로 그나마 본교에서 쫓겨나 지산동 동산 분교로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이 왁자지껄. 록인, 의곤, 영종이도 보인다. 서석국민학교를 코 앞에 두고 정문에서 모여 지산동 분교로 가는 아이들의 팔자도 세기는 너무나도 센 편이라. 지금 알고보면 베이비 붐 클라이막스.

동명동 광주여중과 군인 관사를 지나면 몇 명 더 따라 붙어 이견 뭐 날마다 봄 소풍 가는거 같은 분위기다.

“심심한데 우리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냇물 거슬러 올라 가자.” 그래서 시작된 동계천 등교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다 여름 장마가 지는 6월 초. 우리 모르게 갑자기 무등산에 소낙비가 내렸는지 장마비가 내렸는지 강물이 기하급수적으로다 불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야, 다행이다야. 강물따라 가다 바위에 걸려 우리가 꼬집어 냈으니 망정이지 계속 떠내려 갔다면 광주천 영산강 목포 앞 바다까지 갈 뻔 했대야.”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사느냐 죽느냐 엄청 위기의 순간에?”
그날부터 동계천 따라 철도 건널목 뽕뽕다리 아래 지나서 학교로 가는 걸 포기했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들 하느라고 저렇게 일을 한대냐?”

“뭘긴 뭐야, 죄수들이 보리밭 메는 거지.”

“죄수들이 콩밥이나 먹고 있지 뭐할라고 보리 밭은 멘대냐? ‘

“그거야 밥 값 하느라고 농사짓는 것 아니긔어?”

농장다리를 지나면 교도소 붉은 건물이 음산하게 서있고 그 앞 논과 밭에는 뽕뽕머리들이 잉크 바랜 옷 같은 것을 입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등 뒤에는 번호를 단 채.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 위 통행로를 사람들은 농장 다리라고 불렀다.

요즘도 나는 광주 내려가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택시에 오르면 으레 운전사 양반한테 묻는다.

“아저씨 광주 농장다리가 워드메요?”

그러면 늙수구레한 운전수는 입에 침이 마르게 농장 다리를 설명한다. 그러나 젊은 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척 수작부린다.

“농장 다리요? 그게 뭐 광주천 다리래요?”

일차를 통과한 나이 드신 기사분에게는 연달아 질문.

“아저씨 배고픈 다리, 배 부른 다리 알어유?”

“고람. 알고 말고. 거기 가기 전 종방도 아는디?”

“일신방직 전남방직은 북쪽에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학동 세라믹 있던 자리에 거기 종방이 제일 먼저 세워진 광주의 방직 공장 원조지.”

“아저씨 학동 배수지는 워디 만큼 이래유? 거기서 우리 고등학교 앨범 사진 찍고 그랬는디.”

“그거야 지금은 조대 병원 영안실이 들어서 있는 그곳이지. 춘태여상도 없어진지 오래고...”

농장 다리 건너 교도소 앞에 덩그마니 지어진 분교는 위 아래 4개의 교실과 별도로 교무실이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서석초 4학년 남자 8반은 오전 오후반으로 분교로 가고 여자는 본교에 남게 된 어처구니가 발생했던 것.

남자들만 학교에 오니 오전반은 수업 끝난 후 집에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오후 내내 운동장에서 공놀이, 소위 ‘하루’ 시험만 출창나게 해대고 오후반은 학교 오기전 냇물을 거슬러 오른다거나 아니면 조대 깃대봉을 넘어 딸기밭을 거쳐 분교에 오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2월 초겨울, 무등산에 눈이 세 번 오고 난 후 깃대봉에도 눈이 호복히 쌓여있는데 거길 넘어 오느라 춥고 힘든데다가 또 낙상까지 해서 언덕을 구르는데 이번에는 바위가 아니라 나무에 걸려 살아나는 구사일생이다.

그런데 지금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그때 4학년 동산 분교로 간 남학생은 분명 8학급 640명 정도인데 우리 6학년 졸업 앨범은 남자 11학급 여자 10학급 합이 21반이라. 남자의 경우 8학급이 3년후 무려 3학급이나 불어나 졸업하다니. 아무래도 그때 광주에서는 서중 들어가려면 서석에 가야한다고 시골 촌 구석까지 머리 좀 돌아가는 인재들이 너나나나 모두 서석초로 전학온 때문은 아닐까?

아무튼 베이비 붐 시대의 원조 우리 55년생은 이제 이렇게 추억을 먹고 산다. 그로부터 63년까지 소위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고 울부짖었던 정부와는 ‘소귀에 경읽기’ 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70만명이라나...

재미있는 사실은 동산초등학교 연혁에는
1967. 03. 02 광주동산국민학교 개교
분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해 놓지 않았다.

서석초등학교 연혁에는 분교 사실은 없고
1967. 03. 01 동산국민학교 분리
딱 한줄이다. 역사란 이런 것이다.

그 시절 도내기 시장 중간 한옥 집에서 점심 벤또 들고 오라던 박상규 선생은 지금도 계신지? 이 한 줄의 역사로 애기들 엄마는 서석에서 쫓겨나 동산초 졸업생이 된다.

황혼

“선생님, 15번 문제 답이 이상해요?”
“뭐냐? 6 25 발음 문제구나. 뭐가 이상하냐?”
“ ‘유기오’ 라고 발음하는게 정답 아니여요?”
“ ‘웅니오’ 가 모범답이라는데 말도 안돼요, 이상해요.”
“ ‘웅니오’ 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우리를 가르치는 담임도 난감했다. 그리고 교무실에 황급히 다녀와서는
“새로운 한글 맞춤법 발음 법칙에 ‘웅니오’ 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게들 알고 채점해라.”

초등학교 다니던 중 제일 당황스러웠던 시험 채점 순간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발음하나 정답이 무언지 궁금하다. 누구 가르쳐줄 사람? 그건 그렇구 그때 국어 교과서에는 얼마나 황당한 글이 많이 실려 있던지? 지금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말지만 초딩이던 그 당시는 이상하기만 했다.

먼저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참을성있게 기다려 밀어내기 하자 거기에서 보물 구슬을 찾는다는 이야기. 분명 배웠을거다. 부잣집 토방 마루에 앉아 있던 주인이 자기의 보물 구슬이 없어진 것을 알고 손님을 닦

달한다. 그러나 범인은 오리무중. 이때 거위가 마당앞을 유유히 지나가자 손님은 땀 싹때까지 기다리자는 말도 않고 열시를 참아내며 묵묵히 기다린다. “거위의 배를 갈라라.” 고 주인이 말하는 순간 거위는 죽는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구슬도 찾고 거위도 살린다. 기다림의 미학, 초딩 교과서 치곤 수준이 엄청 높다.

이때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열이 가라 앉지 않으면 체를 내는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면 노파가 손가락을 목구멍으로 쑤욱 순간적으로 집어넣어 체한 것을 꼬집어 내 아이를 낫게 했다. 또한 그 토사물은 거위나 닭이 먹었다. 그 뒤로 몇 번 학동 체내는 집에 가서 무면허 시술을 받을때면 어찌 그때 교과서에 실린 거위 이야기가 떠오르던지?

두 번째 황당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나? 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장티푸스 이질 그런거는 모르고 아마 몇해 전 유행했던 악성 감기나 광우병, 아니면 전국으로 번지는 가축병이 무섭다고 대답할거다. 마마 호환 이질이 무섭다고 그러고 호랑이를 달랬던 곳감이 제일 무섭다고 날 넘은 조숙한 애들은 당당히 대답할거다.

그런데 그 교과서는 황혼이 제일 무섭다고 가르친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중병에 든 암 말기 환자를 그렇게 표현 했었나 보다. 황당하지 아니한가? 아직 팔팔한 청춘도 되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우라고 내놓을 글이니 말이다. 너무나 무겁다.

나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어릴 때 병원이 없어 멀리 아들 업고 뛰는 어머니. 체를 내려 간것도 몇 번 죽음의 고비였고 그 뒤로 5살 때 신장염을 앓아 전대병원에 몇 달 입원했던 것을 말씀하셨지만 난 병원에서 아등바등 한 기억은 없다. 그때 간호원이 주사만 놓으러 오면 엄청 당당하게 거절하고 시끄러웠다는게 어머니의 후일담이었다.

그런데 초딩 2학년 때던가? 오후반이라 집에서 한가한 오전을 맞고 있는데 집 가까운 전대병원에 시체가 즐비하다고 연락망이 났다. 아이들 서넛이서 전대병원에 쫓아갔더니 때마침 열린 공설운동장 전국체전이 무슨 대단한 구경거리라고 한꺼번에 몰려 문이 와르르 무너지는 통에 집단 폐죽임을 당해 빨간 벽돌 건물 옆에 모두들 누워있었다. 그때 나는 사람의 죽음과 가마니로 덮인 시체들을 처음 보았다.

그뒤로 광주역에서 설날이던가 추석이던가 명절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 계단에서 깨지고 엎어지고 하여 또 한번 참사가 난 걸 기억한다. 그러다가 5 18을 맞고 바로 뒤 광주 제일 극장 앞 지하 룠사롱 화재 때 아리따운 아가씨들의 시체도 전대병원에서 직접 보고 심지어 신원 확인에 나서기도 한다.

서울로 가족을 모두 옮기던 해 바로 그 해에 삼풍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엄청 당황하고 그 몇 해 전 목포 비행장에 착륙하려다 곤두박질한 항공기의 희생자들이 나주 별판을 지나 전대병원으로 줄줄이 후송되던 것도 생생히 목격했다. 그러다 저러다 초딩 시절 교과서의 땅거미 황혼이 무섭다는 그 글의 정체가 시나브로 드러난다.

요즘의 인터넷 교과서는 땅거미 황혼을 바라보는 3대 바보라는 잡담이 우리 초딩 교과서보다 더 낫다. 자식들이 놀러가기 위해 손자를 맡아 달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약속을 파기하며 손자를 봐주는 바보가 첫 번째 바보이고 늙으면 자식들이 용돈을 매달 꼭꼭 챙겨줄 것이라고 믿고 재산을 모두 넘겨주고 나이 들어 자식들 눈치 보는 바보가 두 번째 바보이며, 자식들이 놀러 왔다가 자고 갈 때 혹시나 불편할까 싶어서 방 여러 칸짜리 큰집에 사는 바보가 세 번째 바보란다.

갈수록 세상은 변해가고 세월도 하수상하고 반환점을 돌아 황혼이나 땅거미를 생각해봐야 하는 찰나 또 다시 봄은 저쪽 아래 남녘 고향으로부터 들머리를 활짝 열어 매화부터 터뜨린다.

麥田

니들은 알어 보리밭? 보리밥 먹어봤어? 보리밥 먹으면 방귀가 독하다고 고라제. 어릴때 난 무등산 줄기 조

대 깃대봉 밑 보리밭을 통과해 이맘 때 쯤 산 넘어 칠팔리 캐러 다니고 그랬어. 왜 오늘 반말이냐구? 오늘 그냥 꽃샘추위가 너무 독해서 니덜 밖에 나오기 싫어하니깐 그냥 힘내라고 니그들 되게 싫어하는 자판 두 들기는 놔 내가 참 신기해. 중독이야. 나두 모르겠어.

아무튼 오늘은 주워들은 유머 몇편 같기고 갈게 아침부터 너무 웃었다고 배꼽 빠졌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라진 마. 석현이가 엇그제 동창회 나와 고라더라. "법원 검찰 경찰 불일 생기면 이다리 저다리 통해 이중 삼중으로 둘다리 건네지 말고 다이렉트로 좀 와서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나두 모르겠다. 아무튼...

젊은 부부가 보리밭을 매다가 종달새가 짹짹 하는 모습을 보고 충동을 느껴 그 자리에서 일을 치렀어. 일을 끝내고 보니 닻을 것을 준비 안해서 어찌지? 남자말에 색씨가 하는말

"햇별이 좋은데 누워서 그냥 말려."

잠시 뒤 마늘은 일어나서 밭을 땀어.

"여보, 벌써 말렸어?"

"엠벙하네, 쪼개서 말리는것과 통으로 말리는 것이 같냐?"

그즈음 며늘아 될 아이는 영동 화약고로 애인 면회를 갔어. 옛날에는 면회신청서 용지가 별도로 있었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다 적는 칸이 있어. 하나하나 메꿔 내려갔지. 그런데 마지막에서 탁 막히고 말았어. 왜냐문 조그만 칸에 "관계"라고 적은 공간이 있었지. 시골떼기 순진한 여자,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어.

"부끄럽구만 뭘 이런 걸 다 물어보노."

한참을 망설인 끝에 "모3보4"라고 썼어.

그랬더니 보초병 쳐다보며 "이게 뭡니까?"

"망할놈의 자숙, 별 걸 다 물어보네, 모텔 3번, 보리밭 4번.. "

아무튼 여자는 보리밭에서 밭밭에서 하면 조심해야혀. 뭘? 혹시 보리 꺼실꺼실 고것이 그 틈새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구.

그런데 일본놈 덜 성씨를 보면 다나까(竹田;대나무 밭)나 기노시타(木下;나무 아래)처럼 특정 장소를 연상시키는 성이 많아. 왜 고랄까?

극히 혼란스럽던 일본 봉건시대에 지그끼리 싸워 너무 많은 남자들이 죽자 나라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여자들은 외출할 때 아랫쪽 속곳은 입지 말고 등에 담요를 항상 매달고 다니다가 아무데서나 아무 남자를 만나면 애를 만들도록 명령했어.

지금도 일본여자들은 기모노를 입을 때는 팬티를 입지 않는 기행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운 좋게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들은 빅 행운이 주어진 거쥬.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애를 낳으면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이름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만든 장소를 가지고 작명하게 된 게 오늘날의 일본인들의 성이 되었다고 고라드라. 믿거나 말거나.

木下(기노시다): 나무 밑에서 애를 만들다

山本(야마모토): 산 속에서 만난 남자와...

竹田(다께다): 대나무 밭에서

大竹(오다께): 큰 대나무 밑에서
太田(오타): 큰 밭에서.
村井(무라이): 시골 동네 우물가에서.
山野(야마노): 산에서 만들었는지 들판인지 기억이 안 난다
川邊(가와베): 일을 끝내고 고개를 들어보니 개천이 보였다
森永(모리나가): 숲 속에서 만난 남자와...
麥田(무기타): 보리밭에서.

기노시타(木下;나무 아래)라는 성씨의 일본인이
미국인을 처음 만나 “오우, 우린 종친이군요!” 했어.
미국인의 패밀리 네임은 언더우드였지. Underwood
그나저나 올 봄에는 다덜 답답한 방안 침침한 베드를 벗어나봐

깃대봉

남는건 시간 뿐이라고 맨날 놀아도 세월은 더디 흘러 가는 것 같다. 학교가 파하면 집에 있는 못들을 하나 둘 가지고 동네 위를 지나가는 철로에 간다. 경전선 철로가 저기 남녘 어디에선가 시작해서 오른쪽 남광주를 거쳐 왼쪽 광주역에 이르는 핏줄이다. 그길은 마치 뚝방처럼 불룩 솟아 숨이 차기도 했는데 그 기차길을 건너야 도매기 시장이다. 우리는 모두 기차가 어디 만큼 오는지 귀를 대어 들어보고 쇠길로 전해오는 심장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기차가 어서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 기차가 점점 가까이 올라치면 형아들은 소리친다. “야 기차 금방 오니까 빨리 못 올려놓고 내려가자.”

기차는 우리 앞을 아무런 일이 없던 듯 지나치지만 옆드려있던 꼬맹이들의 두 눈은 빛났다. 내가 올려놓은 못이 어디로 튀었는지 알아야 내것이고 고걸 모르면 푹푹하던 못이 납작해 지면서 문제가 자주 발생 하곤 했다.

“야 니는 왜 내 못을 주워가지고 니것인 양 재고 있어.”

“아니랑께. 내 못이 틀림 없당께로. 내가 분명히 봤는디.”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 형아들은 재판관이 되어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기 일쑤여서 평소에 과자 준 놈에게 멋진 못을 안기기도 했다. 못 납작은 조금 위험한 놀이였지만 그 단단한 철물이 모양을 변한다는 것. 그때부터 우리 동네 아이들은 기차길 옆 오막살이에 옥수수가 잘자라고 철도가의 인구가 많은 이유를 차츰 깨달아 나갔다.

철길을 건너가면 무등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산들이 보이고 마지막 솟은 봉우리를 우리는 깃대봉이라고 불렀다. 조선대학교 건물은 하얗게 산모양으로 길게 연이어 지어져 있었는데 학교 재단에서 태극기를 거기에 높이 걸어 놓고 하여 그 봉우리는 깃대봉으로 불렀다. 우리 사는 동네에서도 태극기가 보일 듯 말 듯. 이 대학 총장은 아침마다 건물 옥상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아하, 나의 행복한 돈들이 굴러 들어들 오는구나."라며 흐뭇해 했다는 이야기가 누군지 입에서 나와 소문으로 떠 다녔다.

그리고 용트림이 끝나는 길목에는 대학 본관 건물이, 그 아래는 유명한 108 계단이 엄청 위용을 자랑하며 뻗어 있었다. 운동장과 우람들이 나무들 사이로 부고가, 공전이 자리하고 부여고, 여중 건물이 곳곳에 도열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놀이터도 거기 무한정 있었다. 운동장 아래 들에는 골짜기에서 흘러 내린 물로

조그마한 웅덩이를 이루고 개울을 이뤄 아래로 흘러내리면 그 물로 여름에는 농사를 짓는 논이며 겨울 보리밭이 꽤나 크게 펼쳐져 있었다.

겨울이면 형들은 우리를 깃대봉 넘어 산으로 인도했다.
“저기 봉우리 하나 넘으면 침이 많이 있어야. 침 캐러 가자.”
“무얼로 침을 캐요? 삽이나 괭이 그런거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거야 하나나 둘이면 되지. 니네들은 그냥 따라와.”

봄이 되면 웅덩이로 올챙이 알 사냥에 나섰다.
“올챙이 알은 말이야. 미끈미끈해서 기분이 좀 그렇거든.”
“고걸 집에 가져가서 어항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개구리가 나온다.”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집에 가서 보면 알거 아니야. 아무튼 다리 나올 때 와서 개구리 다리 노랗게 구어 먹자.”

봄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보리 서리를 하러 나섰다.
“야. 성냥 누가 가져왔냐?”
유엔 팔각 성냥을 누군가 내 놓으면 신문지에 불을 놓아 모닥불 피운다. 냄새가 노릇하게 오지게 그을려 보리 모가지를 구우면 씨꺼멧게 탄 보리알이 먹음직스럽다. 원래 갸부기란 갸부기 병에 걸려 까맣게 버림 받은 보리 이삭을 말한다. 우리의 갸부기는 이왕 서리 간거 병든 것 누가 먹어? 진짜로 잘여문 보리 이삭 불에 그을려 먹는다. 그걸 까맣게 태우니 병 걸린 갸부기와 색깔이 같다 하여 보리 갸부기를 먹다 그렇게 된거다. 이왕 도둑 됐는데 누가 병 걸린거 먹어? 엄청 질 잘 여문것 먹지. 입가를 새까맣게 물들였던 추억의 갸부기. 갸부기는 우리 어린시절 원기소라 푼다. 왜냐고? 갸부기 먹고 한여름 거뜰히 날 수 있었으니까. 고걸 먹고 난 후 입도 꺼멧고 손도 꺼멧고 콧물도 꺼멧게 흐르면 정말 정력도 농축되어 씨꺼멧꺼...

아무튼 30만평에 달한다는 이 조선대 깃대봉 아래 들녘은 우리의 놀이터였지만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나와 같이 파란만장 일생을 같이한다.

벤또

점심 시간이 되기전 30분은 학교로 벤또 싸들고 가는 개미 행렬이 줄을 이었다. 나의 금쪽 같은 아들 딸들 점심이 비록 찌그러진 양은 벤또 소찬이라고 할 지라도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도의 어머니들은 정성들여 뜨거운 밥을 싸서 학교로 들고 가는 진풍경이 된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도 직접 아들 딸 만나 볼 수는 없었다.

유리창 넘어 공부하고 있는 아들 딸에게 잠시 눈웃음 주고 복도에 하나 둘 씩 가지런히 놓고 나왔다. 안심이 안되는 부모들은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반 수업을 가야하는 동생들은 얼른 벤또를 나누고 나왔다. 형과 누나들은 언제나 보아 왔던 우리 집 책보를 집어들어 매듭을 풀고는 흐뭇해져 모두들 맛있게 냠냠. 즐거운 시간.

벤또를 펼치면 각양각색 메뉴들이 펼쳐진다. 제일 평범한 것은 그냥 밥에 김치 조금. 좀 더 여유 있는 집은 밥위에 달걀 후라이 하나. 더 여유 있는 집은 멸치 볶음. 부잣집 아들 딸들은 굴비에 부침개에, 그러나 뜬금없이 어느날 갑자기 반찬을 잘 차려온 애도 있었다. 어젯밤 제사 음식이 그대로 벤또에 담겨있는 것. 메뉴야 어쨌든 젓가락 잘 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할것없이 너무 부지런하다. 말 할 새가 없다.

진짜로 밥 싸올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고아들이 그랬는데 이들은 점심 시간이면 살며시 사라졌다. 나중에 "수돗가에서 물로 배 채우더라." 라는 소문이 날아 들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긴급 구호 물자를 보내와 옥수수빵을 만들어 매일 공급하였다. 그 빵은 밥 싸오지 못하는 애들 전용이었다.

즐거운 점심 시간. 그런데 남자 선생님들은 학급 반장이나 부반장에게 자기 벤또를 집에서 좀 가져다 달라고 주문했다. 4학년때 나는 학교를 출발해 선생님 댁에 가서 벤또를 인계받고 그걸 조심해서 들고 학교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 책상에 내려 놓곤 했다. 참 고마워야 할 선생님이 어느 날 역정을 내셨다. "아야. 국물이 많이 흘렀다야. 좀 조심해서 들고 오제 그랬냐."

"와따메 환장해볼것네. 그 무거운 벤또를 들고 온 것만 해도 어딘디. 선생님은 저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신다냐?"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아도 그래도 당시 선생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움켜 쥐고 있는 무소 불위의 대통령 보다 더 높으신 분이였다.

"예. 다음에는 조심히 들고 올게요."

어느해던가는 점심 30분을 남기고 수업 중인 반장 또는 부반장을 불러 벤또 심부름을 시키셨다. 그때는 또 대문을 지키는 6학년 규율부 형들도 있어 정문 나서기가 힘들었다. 그럴때는 선생님은 우리 팔뚝에 도장 하나씩을 박아주며 앞에 보여주고 가라고 이르셨다. "그래도 선생님이 날 믿으니까 심부름 보내지." 뿌듯한 마음으로...

문제는 점심 먹은 후가 항상 말썽이었다. 밥 먹고 나서 여름에는 문을 활짝 열어 두어 냄새가 금방 빠졌지만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꺾으면 문 열기가 어려웠다. 그럴때면 선생님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너희들은 냄새도 모르냐? 반장. 내일 부터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점심 후 창문을 활짝 젖혀 놓도록.."

문제가 또 불거졌다. 점심 후 조는 아이들은 그렇다고 치드레두 가끔 보리밥을 먹고 방귀를 몰래 피식 끼는 아이들도 많았다.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말고.

"또 누가 꾸었냐? 필라몬 수업에 방해되니께 나한테 말할것 없다. 그냥 손 들고 살짜기 얼굴 마주치고 밖에 조용히 나가서 양신 꾸고 들어오면 된다. 알겠느냐?"

점심 시간에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엄청 큰 주전자였다. 주변은 항상 점심 직후에 물 당번을 해야 했는데 수도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 식수를 공급하다가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여러 위생상 문제로 보리차를 펄펄 끓여 배급했다.

주변이 되면 시간마다 분필 가루 마셔가며 칠판뒤편을 밖에 나가서 털어와야 했으며 수업 파하기 전 옥수수빵을 타오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었다. 그 맛있는 빵은 한반에 하루 30개 정도 배급이 나왔다.

그나저나 요즘 살림살이 좀 퍼졌는지 모르겠다. 통장 잔고 마이너스로 자유낙하하고, 치솟는 전셋값에 숨이 턱에 차고, 취직의 길은 변비처럼 딱 막혔는지? 나만 빼놓고 다들 잘사는 것 같고, 친구들도 하나둘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한 듯 여겨지고 그렇다면 그 때 노랗게 찌그러진 맛난 벤또를 떠 올려 보심이 어떨지?

극장

나의 국민학교 시절 부잣집은 이제 시나브로 전축을 들여 놓고 영화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즐기는 엄청 귀한거였다. 동네에서 1원짜리 ‘독사탕’ 하나만 확보해서 친구들에게 한번씩 돌아가며 빨개하면 엄청 대장 취급을 받던때.

‘껌’ 아닌 ‘곰’ 하나 생기면 두고두고 밥상 머리나 벽에 붙여놓고 1주일 아니 그 이상을 씹던 때였다. 부잣집은 또 흑색 말고 백색 전화를 놓고 엄청 빠까뻘쩍 가보 1호라고 자랑하고 흑색 전화는 임대인데 그것만이라도 어디인가? 그런 시절 이야기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영화관은 한참 절정에 달하고 총을 쏘니까 주인공이 맞고 쓰러진다. 멀리서 말을 타고 온 싸나이... 휘파람으로 구성된 주제가 흐르면서 주인공은 다시 일어난다. 총이 가슴속에 숨겨 둔 은화 1불에 맞아서 극적으로 살아난다...

이게 내가 처음 본 영화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나의 국딩 4학년 시절 1965년 상영 된 영화인데 코흘리개인 내가 어떻게 그 영화를 보았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그날도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노는데 아마 하룬가 공놀인가 하다가 내가 손을 움켜쥐고 세게 친 공이 이웃집 너머로 가더니 "뽕끄랑" 소리가 울리며 우리는 모두 36계 뽕소니를 쳤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집 주인이 신고하여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일만 남았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땅만 바라보며 걸어 가다보니 총장로 3가가 나오고 당시 광주에서는 가장 크고 깨끗한 영화관 제일극장이 있었다.

그 앞에서 이리저리 포스터를 침 질질 흘리며 구경을 하는데 영화가 끝났던지 모두들 우르르 몰려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다음 프로를 위해 영화관으로 표를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래서 저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눈에 번쩍 띄는 광경이 있었다.

어떤 흰칠한 신사가 양복을 입고 나 또래의 어린애 손을 잡고 영화관에 입장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표를 내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며 그냥 통과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 애를 바로 뒤따라 들어왔더니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생 처음 영화관에서 본 문화적 혜택이 “황야의 은화 1불” 이었던 것이다.

1985년 TV에서 주구장창 틀어주던 이탈리아인 웨스턴을 보니 어릴적 내가 봤던 그 영화는 이름도 찬란한 ‘황야의 은화 1불’

남북전쟁이 끝나고 남군장교인 형제 게리 오히라와 필 오히라는 북군수용소에서 풀려난다. 풀려 나면서 총신이 잘려나간 총을 한 자루씩 지급받는다. 제대로 겨냥도 안되는 쓸모없는 총을 말이다. 필은 서부로 가고, 이별하면서 징표로 1불짜리 은화 1불을 형에게 준다.

게리는 고향에 가 애인을 만나고 서부에 정착하러 동생을 찾아가는데 악덕지주와 그의 동료인 보안관의 농간에 말려 그만 동생은 죽고 게리도 총에 맞아 버려지지만 기적적으로 가슴 주머니의 은화에 총탄이 맞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다. 그리고 악당들의 손에 떨어진 애인을 구하고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게리는 악당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동생이 먼저 떠나고 형은 좀 있다가 어떤 갱 집단의 해결사로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총 좀 만지는 형이 맡은 첫 직업이 아 글썄 동생을 죽이는 일 아닌가? 이런 뭐같은 일이 있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은 갱단에 의해 죽고 형 역시 개기다가 총에 맞는데 동생이 작별하기 직전에 가슴에 넣어준 은화 1불이 대신 총알을 맞아서 극적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형의 비장한 복수극.

황야의 은화 1불은 내 역사 제 1호 영화를 기록하면서 메인 테마는 귀에 짹짹 달라붙는다. 휘파람을 이용해 만든 배경 음악중에서는 엔리오 모리코네의 무법자시리즈에 비견되는 명곡이란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체조 선수 출신의 줄리아노 젤마였다. 그런데 너무 이름이 이태리틱하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몽고메리 우드로 바꾸고 영화를 개봉했다. 이 남자 지금봐도 정말 흰칠하니 나 만큼이나 잘 생겼다. 그뒤 배우 생활 하다가 이 조각처럼 생긴 아저씨는 진짜 조각가가 되어 있다고 한다.

작은 소도구를 사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펼치는 웨스턴은 상당히 많았지만 아예 그걸 대놓고 제목에까지 써 놓은 그리고 성공한 작품 중 하나. 나에게 문화가 뭔지 가르쳐준 영화가 바로 이 '황야의 은화 1 불' 이다

허무한 마음을 부른 정원은 휘파람 소리 들리는 이 영화 음악을 나중에 번안해 부르는데... 정원의 번안곡 '방랑의 휘파람'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온 사나이
황야의 악당들과 마주치면
겨누는 총알마다 백발백중
악당들과 목숨걸어놓고 싸우는 사나이
주막집의 아낙네는 눈물짓고
떠나가는 사나이를 바라볼때
끝없는 황야에 평화의 종소리가 퍼지네

"총장로도 이젠 끝이어야. 그 번성하던 제일극장도 안돼 저렇게 흉악스럽게 문 닫고 있으니..."

"고람 노래방 당구장도 안되곤킨...."

"그나 그때 니가 따라 들어간 그 사나이의 정체는 뭘까?"

"응, 그야 국에서 온 사람 편집국, 방송국, 경찰국 아니면 정보국... 아니면 약국..."

광주 갈때마다 나는 무등산 증심사와 중머리재 입석대 서석대, 총장로에는 꼭 들려서 온다.

그 많던 총장로의 사람들이 썰물같이 빠져 나가 공기 좋은(?) 무등산 길목을 가득 메우고 있다.

낙서

서석초 광여고 공고 세 학교는 빨간 벽돌 담이 엄청 길게 높게 둘러 쌓여 있다. 아이들이나 누나 언니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이 담을 사이에 두고 제 갈 길을 바쁘게 오간다. 겨울에는 그 거리에서 썰매며 대나무 스키를 탄다. 코흘리개 손 등이 거북처럼 튼 애들이지만 낙은 있다. 낙원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많은 또래 녀석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만 했지 사라지는 녀석은 없었다. 그러나 가끔 거기 골목 담장에는 민망한 낙서들이 하루 사이에 예쁘게 그려지곤 했다.

“수철이와 영희는 뽀뽀 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찮았나보다. 다음날에는 진도를 더 나간다.

“수철이와 영희는 뽀X도 했다.”

4월 벚꽃필 때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은 항상 날씨가 개떡 같았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심지어 우박이 내리치고...

“소사가 용을 죽여서 그 용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학교 변소에 숨어 저주를 내리는데 그래서 소풍 날만 되면 바로 비가 오고 그런데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무섭던 화장실이 만화방으로 변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친구집엘 놀러 갔는데 친구는 없고 친구 누나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친구 누나의...”

나중에 그 낙서는 시내 3류 극장뿐 아니라 1류 극장 화장실에서 건너 왔음을 안다. 중학 단체 관람 때 가본적이 있었는데...그 곳이 원조 낙서고 여기까지 출장은 글들이었다.

“벌리고....아~ 쿵닥닥 .W x Y.그림에....대포같은 물건을 그려 놓고.....”

낙서의 공통점으로 대표적인 것은 불만의 표현. 우리는 나중에 이를 예술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외설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저 청소하는 소사 아저씨만 괴로운 일. 골목길의 낙서는 분명 대상이 있다. 또한 목적이 있다. 그것도 불만의 표시인데 점수를 줄 순 없다.

화장실의 낙서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을 어필하는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일처럼 꾸며진 이야기를 적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표출하는 '어떤 누나..혹은 좋아하는 여선생의 은밀한 부분... '

지난해 가본 서석초의 담벼락이 무등산의 사계절을 담은 중견화가의 벽화로 새롭게 색칠되어 있었다.

서석동과 남동을 합친 동사무소인 동구 서남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테마가 있는 도심 속 벽화' 만들기 조성사업의 첫 성과물로 서석초 담벼락에 서양화가 임은순 씨의 작품을 입혀 뵈다는 것이다.

유명한 서석동 담벼락의 벽화는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위원회'를 직접 구성, 설명회를 거치는 등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물이라는 평가.

특히 서석초의 퇴색된 벽면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젠 옛날 그리운 낙서를 영영 볼수 없을려나?

“영희와 수철이는 뽀뽀하고 그리고...”

'영희 샘과 수철 샘이...어찌고 저찌고...'

그리고 넓다란 학교 운동장을 10바퀴 돌아야 하는 불상사도 이젠 그만이다.

입학

해마다 봄이 오면 한 학년씩 올라가고 졸업을 하고 또 그만큼의 1학년들이 와서 자리를 메웠다. 취학 통지서가 나오고 어머니들은 내 아들 내 딸이 국민학교는 가야 한다는, 거기서부터 떡잎을 잘 가꾸면 판사 검사가 되어 집안의 대들보로 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지하게도 가난하고 경제란 개념은 없었던 시절. 우선 집안을 뒤져 첫째가 썼던 것을 둘째에게 차례로 대물림 할 궁리에 여념없었다.

우선 입고 다닐 옷부터 골라야 했다. 큰애가 입던 옷은 주로 무르팍이나 팔 뒤꿈치가 헤어져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걸 기워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는데 기운 옷 입고 학교 가라면 환히 옷을 닦 없기에 피를 내어 그 뽕꾸나시 한 대목을 슬쩍 감추기 위해 토끼를 한 마리씩 붙여 놓곤 했다.

가방도 마찬가지로 었다. 굳세게 물려받은 가방은 설령 제일 만이를 새 걸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밑에 새끼들은 형이나 누나가 쓰던 걸 물려 받아야 했다. 그럴라치면 동생들은 대부분 얼굴이 굳어 지곤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같이 “아 짜증나.” 라고 말한다면 “이런 배우지 못해 먹은 놈, 누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디. 아무튼 너는 호랭이 물어가도 누가 눈 하나 꿈뻑 안해야.” 하며 어거지를 부렸다.

드디어 학교 입학식 날은 다가 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가슴에는 손수건을 차고
엄마 손잡고 판자 집 나와 공고와 우리 학교 사잇길과 서석문구점 중앙문구점 등 몇 개 문구점을 지나 학
교 교문으로 들어서면 저만치 보이는 또 다른 엄마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상냥한 인기있는 우리 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성주 엄마. 올해 입학하는 애 있어요.”

“셋째 놈이라우.”

“첫째는 서중 들어 갔지요?”

“백명이 좀 넘게 들어 갔는 모양입데다. 480명 중 130명이라나 뭐라나 고라데요.”

“그나 서중 떨어진 청강생들이 몰린다고 하던데.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때는 학원이라고는 눈에 찾아 볼 수 없고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 자기 집에 애들 불러 모아 특별 입시 학
원을 운영하던 때였다. 월급이 쥐꼬리만하다고 자기반 애들 불러 집에서 개인 교습을 해도 세상이 어지러
워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 시절이었다.

“6학년은 한반에 몇 명씩 서중 떨어진 애들이 그냥 와있는 있는 모양입데다.”

“그거야 교장 선생님이 비면에 알아서 하셨겠지라우.”

“그나 한반에 80명이면 수업이나 될지 그게 걱정이라우.”

“모두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그 중 서중 갈 애들은 따로 30명가량 앞에 앉쳐놓고 집중적으로 가르친
다고 하던데.”

“그럼 중학교 못갈 애들은 그냥 뒤에서 잠이나 자는 거유?”

입학 할 애는 저리 팽게쳐두고 어른들은 고놈의 일류 중학을 몇 명이 들어가고 전라도 제주도까지 합하여
이 학교에서 480분의 130 정도 했다고, 거의 4분의 1을 뛰어넘어 자랑스러워 했다. 그래서 학교는 날로 인
구가 많아 지고 이렇게 시끌벅적 한데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학부모들은 그것이 엄청 뿌듯하였던 것이
다.

“애들 담임은 누가 될랑가 모르겠네요? 남자 선생님 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여자 선생님보다는 남자가 애들 확실히 길을 잘 들여요.”

“작년 큰 애 맡았던 선생님은 학과는 안 가르치고 맨날 하모니카나 피리나 불게하고 맘에 안 맞아서 그
걸 삭이느라 혼났시유.”

“아뭇튼 교실이 부족해서 강당을 막아 8칸인가 쓰는데 그것도 위가 뽕뽕려 옆반 소리가 다 들린데요.”

“아마 3학년이 거기서 수업 한다는데...”

“4학년은 저기 농장 다리 넘어 교실 8칸 지어 멀리 동산분교로 쫓겨 난데요.”

어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운영위원이나 광주시 교육 위원회 교육위원들의 회의 같은 걸 길거리에서
마구 해댄다. 물론 회의 수당이나 댕가도 없겠지만 학교 돌아가는 걸 빠삭히 아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지금 태어나셨더라면 아마 구의원 교육위원은 떼 논 당상이었을거다.

행진곡이 울려퍼지고 1학년 각 반별로 서있을 때 대머리 교장 선생님은 무려 20명이나 되는 1학년 담임들
을 소개한다. 담임들은 머리를 숙여 생긋 인사하며 자기반 앞으로 나가 신입생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1학년 1반” “예” “선생님이 병아리하면 삐약삐약 오리하면 꺹꺹 강아지하면 멍멍.. 힘차게 따라 하
는 거예요.”

새로 입학한 첫날. 나의 담임 선생님은 배불뚝이 여선생님 이셨다. 그리고 얼마 안가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 교정에 꽃비를 내릴 때 출산 휴가를 가셨다. 우리는 덕분에 더 예쁘고 상냥한 임시 선생님이 아닌 교생 선생님과 두어달 즐거운 생활을 했다.

철수와 영희와 바둑이로 시작하는 신입생 내내 나는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했다. 철수야 안녕 영희야 안녕 바둑이도 안녕 그러나 선생님은 애를 낳으러 학교에 안오신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도대체 판단이 안섰다. 그리고 애는 어떻게 낳는지 그 봄날 내내 궁금했다. 애는 왜 낳나? 나는 왜 쓰고 있나? 왜 낳는지 몰라서 쓰고 있다. 지금처럼 아우성이네 뭐네 성교육이 있는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어떻게 애를 가졌고 또 어떻게 애를 낳으러 갔는지 월급은 나오는지 그 봄 내내 궁금했다.

일기

지금까지 쓴 나의 초딩 그 때 그 시절 콩트가 다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전혀 순진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미 어른의 생각이 99% 들어가 있었다. 그럼 살짝 동심으로 돌아가 보자

국1 1962년 5월 1일 일기 날씨 맑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전체 조회를 하였다.
국어 쪽지시험 100점 맞았다.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친구집에 놀러갔다.
저녁에 밥 먹고 잤다.

국2 1963년 9월 1일
국어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내 옆으로 오셔서 조용히 말씀 하셨다.
“이 시 네가 쓴거 맞아?”
“왜요? 맞는데요.”
“방학 숙제 전시회에 내고 상 주려고.”
나는 속으로 약간 찼다. 하여간 이 시로 나는 문단에 등단한 셈이다.

사진
벽에 걸린 사진이 나를 보고 웃는다.
벽에 걸린 사진을 나는 매일 닦는다.
벽에 걸린 사진과 나는 싸움을 한다.
벽에 걸린 사진과 나는 두눈을 본다.
벽에 걸린 사진과 나는 눈싸움 한다.
벽에 걸린 사진이 나를 항상 이긴다.
벽에 걸린 사진과 내가 눈싸움 하면
벽에 걸린 사진이 나를 항상 이긴다.

국3 1964년 6월 모일
선생님께서 아침에 오시더니 오늘 전체 조회에서는 우리 반 성진이가 교장 선생님에게 우수상을 받으니까 박수를 크게 치도록 명령했다. 한달 전인가 사직공원에 가서 신문사 주최 백일장 대회를 하는데 참가해 시를 써놓고 온적이 있다. 그게 당선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 자랑스럽게 모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장을 받고 내려왔다. 그리고 부상으로 준 한국일보 금메달은 그 후 몇년 책상위에서 자랑스럽게 반짝이며 버텼다.

송아지

송아지가 음메 엄마를 찾아요

송아지가 음메 아빠를 불려요
배 고픈가봐요.
송아지가 음메 누나를 찾아요
송아지가 음메 친구를 찾아요
놀고 픈가봐요
어미소가 음메 아들을 찾아요
어미소가 음메 딸들을 찾아요
젖줄려나 봐요
아빠소가 음메 아들을 찾아요
아빠소가 음메 딸들을 찾아요
소풍가나 봐요

국4 1965년 3월 10일

선생님이 몇몇 애들을 남으라고 하셨다. 이미 전학년에 반장한 아이, 학부모가 와서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한 아이, 그리고 선생님이 고른 아이, 작년 그러께 동료 선생님이 추천한 아이들일 터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직접 환경 정리를 한다.”

그래서 모다들 뒷면 전체에 모자이크 대형 그림을 그리는 대역사가 벌어졌는데 난 그냥 놀았다. 그림에 소질이 없기에... 한참을 고민 고민 하시던 담임 선생님.

“야. 성진이 너는 저쪽 벽에 시를 액자로 해서 곱게 걸어라. 우리반 아이들이 외울 수 있게.”

나는 진짜로 자신만만했다. 우리집 서재의 한국문학전집 중에서 고르고 골라 시를 걸었다. 선생님은 무척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서정주 - 무등을 보며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있는

여름 산(山)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午後)의 때가 오거든,

내외(內外)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비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쑥굴형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국5 1966년

담임이 맨날 음악만 가르쳐 동방극장 무대에 섰다. 광주일보에서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다.

국6 1967년

서중학교를 가기위해 꼭두새벽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페퍼홀더로 가리고 시험만 보다.

국졸 43년후

초딩동창회 사이트에서 북한산 진달래 보러 가자고 병개를 쳤다. 동창들 3명 왔다.

한달 뒤 동창회에서 나의 라이벌이 따진다.

"야, 너는 학교 다닐때 족지 시험 못보더니 지금도 맞춤법이 엉망이어야. 번개지 병개가 뭐냐?"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번개라고 쓰고 병개라고 읽는데 요즘 아이들은 맞춤법에 따르면 번개고 읽는

데 병개, 요게 따로따로 비합리적이라고 그럴 필요 있냐 그래서 그냥 병개라고 쓰는겨."

"뭐? 따지지 말어? 내참. 이런 엉망이 어딴냐? 그나저나 초딩 유딩 국딩 직딩 중딩 고딩, 요건 어디서 나온 말이나?"

"고거야 당연히 사람 덜 입에서 나온 말이지."

주판

예나 지금이나 산수하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이제 어른이 슬슬 되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구구단을 꼭 외워야 한다. 지금이사 학교 수업에 앞서 엄청 빠르게 조기 교육으로 배우지만 그때는 구구단 못 외워서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펴서 맞고 빨갛게 핏줄 선 매맞은 아이들이 엄청 많았다. 지금 아이들은 매맞을 걱정 없다. 구구단 외우는 것은 금세고 여유가 있으니 지들도 유머 날리겠다고 이렇게 논다

6x3=빌딩(육삼빌딩)
2x4=센터(이사센터)
9x9=콘(구구콘)
2x8=청춘(이팔청춘)
2x9=아나(이구아나)
3x1=절(삼일절)
5x2=맛사지(오이 맛사지)
6x25=전쟁(육이오 전쟁)
7x8=구(7,8다음의 숫자)
8x2=오삼(빨리오삼)
8x5=감(바로감)
4x9=팔구(사구팔구)
9x4=일생(구사일생)

그러나 그때도 수학을 꽤나 잘하여 이름을 날 친 애들이 많았다. 주산 경시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을 도맡아 오는 이들 주판왕 암산왕이다. 특별 관리 대상이기도 했다.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꼭 초를 친다. "재는 학교에서 수재 천재라고 소문이..."

4,694,998
2,909,135
8,543,578
1,356,089
4,868,782
3,782,231
6,290,193
7,902,874
8,873,234
3,763,683
5,129,892
+ 6,653,906전이면?

무슨 똥단지냐고? 우리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칠판에 주판 걸어 놓고 암산 시킨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들고 몇전이요 몇전이요 몇전이면? 그러면 답을 말하는 애도 있었다. 주판 경시대회도 수시로 있었다.

요즘은 진기명기 수상한 인간으로 TV에 나오곤 한다. 어마어마한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암산왕. 암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어느 정도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하나? 예전에 한국이나 중

국 일본 재벌들은 모두 이 주판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오늘도 영재교육에 나선다.

생각해 보건데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다. 최소한 백만 단위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연습해야 암산왕이 된다. 암산 연습은 어떻게 할까? 자릿수가 작은 숫자부터 연습해서 점점 자릿수를 늘려야 한다. 암산은 주판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머리 속에다 주판을 그려 놓고 계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암산을 연습해야 한다.

$325 \div 25$ 를 계산한다면 머리속의 주판에 325를 올려놓고 '나누기 25'를 계산한다. 곱셈 27×16 을 계산한다면 머리 속에다 깨끗한 주판 하나를 그려놓고 일반적인 곱셈의 방법대로 계산을 한다. 먼저 27×1 계산하고 다음에 자릿수 바뀌어서 27×6 을 계산한다. 머리 속에 그려 놓은 주판을 헛갈리지 않으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가 암산을 잘 하고 못 하고의 차이이다.

암산왕의 수준까지 가시려면 점점 자릿수를 늘여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한다. 거기에 손놀림까지 빠르다면 작은 자릿수의 암산은 해낼 수 있다. 물론 얼마만큼의 시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미를 느낀다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고 단순 반복적인 것을 연습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조금은 힘들다.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척척 해주고 헨편만 있어도 우린 주판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나 요즘 주판을 가르치는 학원도 많다.

학원에서는 주판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배운 아이들은 위의 문제를 암산으로 풀었다. 주판을 배운지 거의 40년이 흘러서 지금은 계산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times 세 자릿수' 정도는 가뿐하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옛날 주판 구르던 소리가 오늘 문득 또한 그리운데 이 봄날 초딩 교실에서는 구구단 외우는 소리가 엄청 구수하게 들리는 5월이다. 나 두 구구단이나 다시 외어 봐야지

영일은 친구
영이는 애인
영삼은 십팔
영사는 극장
영오는 조지
영육은 욕심
영칠은 땡칠
영팔은 왼팔
영구는 바보

공부란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초가 떨어지면 공부해도 안되는 거다. 산수는 구구단부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공식을 알아야 하고 자꾸 문젠 풀어야 이해가 온다. 국어도 가나다라부터 맞춤법까지 제대로 알아야 공부가 된다. 지당한 말씀.

교실

이제 밖에서 그만 놀고 서석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본다. 정문을 들어서면 빨간 벽돌로 된 본관과 그 옆의 강당, 그리고 기억자로 구부러진 벽돌 2층 건물, 그 외는 판자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 학교를 뺨 둘러 서있었다. 정문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몇그루 서있었고 교무실과 높은 연단 사이로는 연못과 토끼장, 그리고 등나무 터널이 있었다.

1 2학년은 검은색 나무판으로 이어진 자그만 교실에서, 3학년은 강당을 개조한 칸막이 교실에서, 4학년은 멀리 지산동 동산분교에서, 그리고 5학년이 돼서야 본부 건물. 교무실 2층에 자리 잡았다. 이제 생각해 보니 본부석 청소를 제일 잘 시킬려면 5학년이 필요했던 것 같다. 6학년은 오로지 입시 공부 하라구 강당 건

너 2층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공 모드를 조성해 주었다.

학교는 빙둘러 빨간 담이 쳐있었는데 우리는 교문으로 가는 것은 정식 등교뿐 그 외는 월담하여 학교에 들어가서 놀았다. 아까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1 2 학년 교실 앞에는 길다랗게 철봉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듯이 연달아 있었고 시이소오와 미끄럼틀. 그리고 6학년 교실 앞에는 철봉이 따로 있었다. 체력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는 달리기, 철봉 목걸기 6회, 넓이 뛰기, 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만점을 받아야만 좋은 중학에 진학할수 있어서 6학년이 되면 이빨을 양당물고 철봉에 매달렸다.

본부적인 교무실 앞에 놓여진 토끼장은 또 얼마나 정겹게 내 눈에 다가왔는지 모르겠다. 5학년 담당으로 날마다 토끼풀을 가져다가 먹이는 당번을 두었다. 연못에는 소금쟁이가 지그들 세상인 냥 까불었다. 그리고 점심시간 물을 끓이던 가건물은 아마 선생님들이 숙직하던 꽤 큰방이 있었는데 바이얼린 부 애들이 모여 갹갹이를 켜곤 하였는데 내귀에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었다.

아무튼 교실은 언제나 소란스러웠다. 그도 그럴것이 정원 초과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으니 조용할 리가 있다. 선생님이 교무실이라도 갔다가 올라치면 반장에게 “떠든 사람 칠판에 적어놔.” 그러면 반장은 “떠든 사람 김종걸 방우식 김순녀 ...” 너댓 사람을 적어 놓았다. 선생님은 그러면 옥수수빵 배급에서 이들을 제외 하였다.

아이들도 가지가지여서 키 큰 아이 키 작은 아이, 얼굴이 험상궂은 아이 이쁘장한 아이, 옷을 깨끗이 차려 입은 아이 더러운 아이, 손등이 튼 아이 말끔한 아이, 손톱이 때꾸장이 낀 아이, 단정한 아이. 아무튼 이와중에서 모양새가 신기하고 순하면 아이들은 일제히 주변에서 소곤거리며 놀리기 시작했다.

당시 아이들은 머리모양이 거의 단발머리나 가리야끼, 요즘의 변형된 상고머리를 했다, 옷도 옥양목으로 만든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치마였다. 부잣집 아이들은 빨간색 가방과, 허리까지 총총 땡아내린 머리 위로 노란 리본이 묶어져 있었고, 또 화사한 꽃무늬의 나일론 원피스는 3단으로 층이진 모습이었다. 이런 아이들은 단번에 또래 아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내아이들은 층이진 여자 애 원피스를 들추기도 하고, 땡은 머리채를 잡고 “이라, 이라” 하면서 소 모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그럴때면 으레 으리의 친구가 편을 들다가 몇 대 얻어 맞거나, 고자질해 담임이 나서꾸중을 주고 벌을 주는게 일쑤였다.

남자애들은 고무줄하거나 그냥 놀이에 몰두하던 여자애들 치마를 들쳐보는 재미로 하루를 보냈는데 들쳐보았자 지금처럼 무지개 색이 선명한 팬티나 땡땡이가 아니라 무덤덤한 흰색이나 칙칙한 천의 속옷이 대부분이어서 별 느낌이 덜했다.

그러다가 좀 되바라진 아이들은 꼬마애들을 꼬셔서 방과 후에 골목길에 데려가 서루 옷을 내리고 거시기 뭉시기를 관찰하는 일도 유행했다. 봐봤자 별거 없지만 서두 그때는 성교육이란게 없으니 그렇게라도 관찰하는게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물물교환식 서로를 보여주기 였다.

애들의 시시비비는 주로 옷이나 마음가짐을 놀리면서 시작된다. 한 아이가 여자애에게 “새침떼기” 라고 놀리면 다들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편든다. 이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으나 놀림을 당하면 얼굴이 빨래지고 어쩔줄 몰라 울기도 하였다. 그러면 더욱더 신이나 놀리고 나중에는 학부모들이 고자질해 선생님이 재판관으로 나서야 모든게 정리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잘알게 되면 누구와 누구가 얼레리 꼴레리한다 즉 친하다, 아니면 남 녀 관계에서는 좀 어떤 섬씽이 있다고 놀려댔다. 아이들은 순박한 생각과 표정으로 서로 놀려 댔다. 지금 생각하면 순진하기 그지 없는 아이들이었다. 이때부터 친구가 원지 나두 패거리가 있어서 나를 보디가드해주는 편들이 많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간다.

공부하는 상급생들. 체력 점수 몇점 더 받아 보려고 철봉에 매달리는 의지의 아이들. 점심 못싸와서 물로 배채우는 아이들. 고무줄 하고 노는 여자애들. 여자 애들을 괴롭히는 남자 애들. 집단으로 교문에 서서 옥수수 빵을 빼앗는 아이들. 양초로 판자를 윤이 나게 걸레질 하는 아이들. 그러다가 담임은 “교무실이 바로 아랜데 떠들면 안돼”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좀 조용해졌지. 학교는 나날이 더 시끄러워만 갔다.

보리밭

조대 뒷산과 지산동 딸기밭 아니면 조대부고 넘어 학동 배고픈 다리, 배부른 다리, 화약고, 현준호 별장까지 우리의 영역을 늘려갈 때 꼭 지나지는 곳이 보리밭이었다.

그날도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보리밭 가운데 앉아 잘익은 보리를 까맣게 태워 먹으며 그야말로 환상에 젖었는데 주인인 듯한 할머니가 저만치서 “야 이놈들아. 남 정성들여 가꾼 보리를 니그들 맘대로 퍼먹어야. 이 도둑놈들아.” 우리는 바로 깃대봉 쪽으로 36계 줄행랑을 놓았다.

우리 패는 중학교 형들로부터 입학 전 아이들까지 동네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는데 얼굴에 수염이 거뭇거뭇 나기 시작한 고참들은 숨을 고르며 알쏭달쏭 소근거렸다.

“우리가 한두개 보리 태워 먹는 것은 일도 아니랑께. 저기 보리밭에 들어가 연애하는게 문제더라 고말이여. 어저께 우리 주막에서 막걸리 마시며 노가리 풀던 할아버지 덜 헛티 들은 야근디...” 하여간 뭔가를 알고 있는 형이 말문을 연다.

“주인이 아침에 나와보면 보리밭 한가운데 보리가 한뭉텅이 싹 뭉게져 있더라.”

“왜 말짱하던 보리가 뭉개지냐?”

“아 고랑께 바람든 처녀 총각들이 보리밭에서 그냥 뽀뽀하고 고라고 그 뭐시기 저시기 하니라고 그런다고 안허냐?”

“거시기 저시기가 뭐난 말이여?”

“응 고건 니들도 차차 크면 다 알게 되는거여.”

“와따 고라지 말고 좀 자세히 설명허주란 말이시.”

이건 완존히 아우성 고전판인디 우찌게 설명을 해야 잘한단 말인가?

“아무튼 남자하고 여자하고 봄바람 따듯하고 종달새 지지배배 우니께 몸이 달아가꼬 둘이서 저기 보리밭 깊숙이 들어가 아무도 안보는데서 얼레리 꼴레리 헛단 말이다.”

그때 도망갈 때 힘이 부친 아이들은 운동화나 얼룩 고무신 한짝씩을 밭에 놔두고 오기 일쑤였다. 그것도 애교로 봐 줄만 한 일이고 가끔 한명이 같이 일제히 도망가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주인에게 잡히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생겨 온 동네가 그날 밤 실종 수사대가 되는 것이다.

그날 같이 간 아이들은 밤에 대문이 시골벽쩍해지면 어머니 랑 같이 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오늘 뭐했냐?”

“우리 아들과 어떻게 헤어졌냐?”

“최후로 본건 언제냐?”

“누구랑 누구랑 있었드냐?”

이럴라치면 어머니는 미란다 원칙에 의해 우리 아들이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말라고 욱박 지르거나 윙크를

해대곤 했다. 이런 사실은 나중에 미국 드라마 CSI나 크리미널 마인드 보고 알았지만서도...

한번은 동네 식당이와 단둘이서 광주 북쪽 끝 공설운동장에 헬리콥터가 내려서 그걸 구경하러 가자고 길을 나섰다. 공고 옆 골목길을 따라 합동 화물을 지나 도청 뒷담을 거쳐 아버지 단골 경향양복점을 통과했다. 그리고는 충장로 1가로 접어드는 것이다.

충장로는 가게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서 지루하지는 않았지만 꼬맹이 걸음에 거기가 얼마나 먼길인지 다만 구경하러 간다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5가까지 주파한다. 그리고 유문동 지나 문화동, 그리고 일신방직, 전남방직을 지나면 공설운동장이다.

헬리콥터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먼지를 일으키며 공설운동장에 내려 앉았다. 그리고 또 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쳤다. 구경은 그게 다였는데 먼지가 날리자 장내가 엉망이 되어 같이 간 식당이를 놓쳤다.

하는 수 없이 혼자 가던길을 다시 돌아 오니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시치미를 떼고 집에 들어와 저녁 먹고 라디오 재치문답에 킁킁 박장대소할 무렵, 식당이 엄마가 찾아왔다.

“우리 식당이 하고 둘이 어딜 갔람서?”

“예. 공설운동장 갔서라우.”

“그런데 왜 니만 오고 우리 아들은 안온다냐? ‘

“가기는 같이 갔는데 잊어버렸시유. 헬리콥터가 먼지를 날리고 뜨고 내리는 통에...”

“그래? 그나 한살이나 덜 먹은 놈은 집에 와 있는데 한살이나 더 쳐 먹은 놈은 여태 안오고.”

그날 밤 운동장 근처 파출소에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다음날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대도시에서 산으로 들로 가서 보리 태워 먹고 올챙이 알 개구리 고무신에 담아 떠나르고 이게 원말 이다냐? 이해가 안가실분도 있겠다. 내가 놀던때가 1960년 초인데 그후로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일이 벌어졌다.

5명의 소년들이 인근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나간 뒤 실종되었다. 그후 11년이 지난 2002년 대구시 달서구 성산고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으나,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1992년에는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 제작되기도 했다.

그때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낮게 떠서 빠라를 뿌리거나 헬리콥터가 지나가면 한참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 두 가닥 선을 그리고 높이 올라간 비행기를 보며 우주 저 멀리 꿈도 꾸었다. 그러나 우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패들 잘 따라다녀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면 실종되거나 밤에 한바탕 소동이 이는 것은 각오해야 했다. 미아가 되면 다음부터는 따라오지 말라고 형들이 왕따를 시키면서 고문관이 되어 했다. 놀림감이 되면 자신이 없어지고 혼자 쓸쓸이 지집애들 노는 주위를 배회 해야 했다.

산신제

정월 대보름 지나고 아직 한겨울이지만, 매화 필 준비하는 2월 끝무렵에 동창들 흥어로 꼬여내 산신제하러 가는 길. 이놈들 긴 등산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온통 생각은 흥어 고놈의 톡 쏘는 맛에...

봉우리 못미쳐 사람 안다니는 낭만길, 고향의 영아당 산토기탕 이야기가 번져 청원모밀부터 시작하는 먹자타령 시작하고 흑산도 흥어, 영산포 흥어 역사 공부 시작한다.

신도시 뉴타운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바로 위 바위 봉우리. 흥어를 젓상에 올리냐 마냐 다투다가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결론 낸 후 상 차리고 두번 절하고 축문 후딱읽고 모두들 종이잔 들고 빙둘러 앉아 삼합

치아님 사정이 좋지 않은 남도 사나이는 "야 좀 팍 삭혀진 흥어는 없냐?" 그래도 누가 아래 쪽 머스메 아

니랄까봐 모두들 흥어 살점에 돼지 괴기 없어 차랑차랑 서울 장수 막걸리 잔 높이 흔들며 “나이아가라...”

말이 정치로 흐르면 모두들 목소리 높아가고 이번 선거에서도 나올 동창 놈 덜 이름 불러보며 14전 15기가 어떻고 누군 출판 기념회가 성황이었고 왁자지껄 톤이 높아졌다가 어느덧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로 접어들면서 Edps 강의로 바뀌진다.

헤실바실 술 동날 무렵 거나하게 취해 벌개져 이제 흥어 애를 맛있게 씹어가며 “만만한게 흥어 거시기라는디 그거는 없냐?” “보리 넣은 흥어 애국도 거 참 맛있는디.” “응, 내려가서 연신네 시장통에 가면 여수 식당 있잖나, 젓장시 식당 말고”

뽕나무가 뽕하면 참나무가 참아라 했다는 야고 끝에 참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고 지금도 모른다나...갈 참나무 상수리 도토리나무 모두 참나무여야. 숲을 만드는 나무 6종류가 참나무란다. 이제는 생물시간이냐?

트림 안나오는 막걸리가 좋긴 좋다. 카~ 하며 갈지자로 하산할 때 한녀석 퀴즈 낸다. 헤밍웨이가 한국의 묵을 무척 좋아 했다. 말년에 한국에서 배달되 온 묵을 맛나게 먹다가 체해서 혼이 났지. 그래서 그때부터 쓴 그의 소설이 몬지 아냐?

"모긴 모여, 대표작 묵이여 잘있거라 지"

"그런디야 묵이나 흥어나 먹다 체하면 약도 없승게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말아라야."

이제 물이 오르는 나무들 사이로 성급한 훌딱 벗고 새가 한 마리 분위기를 돋우며 남겨 놓 흥어나 묵 없다고 보채며 따라오고 있었다. 훌딱 벗고 번뇌일랑 산에 버려두고 속세로 돌아 가라는 말인가 보다.

최고집

"택배요. 광주에서 온건데 엄청 무겁네요."

공공 꿀배박스 하나를 내려놓는 젊은이는 이마에 흐른 땀을 훔친다. 광주에서 온 물건은 보나마나 김치하고 생선 몇마리, 그리고 참게...

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시며 잊을만하면 이렇게 아들에게 다가온다. 손자들은 내가 시킨데로 전화해서

"할머니 택배 잘 받았어요. 인자 그만 보내시지요."

"내가 인자 늙어서 니그들한테 김치를 언제 못보내게 될 줄 모르니..."

"할머니, 우리가 되려 할머니께 김치를 담궜 보내드려야하는데..."

"그나저나 건강이 제일이니 아범 어멈 그리고 니들 밥 잘먹고 공부 잘해라."

이제 지들도 군대 제대하고 남은 학년 공부 마치면 취직하고 결혼할 나이. 어느덧 광주에서 올라오는 김치와 반찬이 많은 부담이 되는가 싶다.

나도 저녁에 퇴근해서 광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만난다.

"또 보내셨어요? 어머니나 맛있게 드시지 그랴요."

"건강은 어떠냐? 고게 제일이다. 술 좀 작작 마시고 담배는 끊었냐?"

"불황이라 하는 일도 시원찮고 그랴요. 돈 많이 벌어 어머니께 팡팡 송금해줘야 내맘이 좀 편할텐데..."

"내 걱정일랑 말아라. 나사 노인대학이고 노래대학이고 남동성당이고 열심히 잘 나다니니까..."

어머니는 무등산 아래서 인생의 대부분을 지냈다. 그래서 서석동 유지요 남동 성당의 발빠른 정보망과 노인대학의 노래팀 등산팀. 나보다 훨씬 바쁘시다. 그게 자랑이고 안심이고 며칠 연락이 없다 싶으시면 그때는 멀리 태백산을 가셨든지 아니면 제주도 멀리 일본 중국으로 여행을 가셨던지.. 그리고는 김치 떨어질때가 되면 어김없이 택배가 날라드는 것이다.

효도란 부모님의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들었다. 한편 생각하면 엄청난 불효요,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머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중년의 어리광이가 되어야하는 나와 식구들이다.

아들 넷을 낳아 그중 하나를 서울로 보내고 못내 곁에 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나보다.
"늬그 형이나 동생네들은 맨날 와서 먹고가는데 그럴때마다 니가 눈에 밟혀야..."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도 않는다.
"아무튼 겁나게 미안하고 고마워분져라. 맛있게 잘 먹을게요. 참게 그거 내년에도 또 보내주쇼."

예로부터 고집하면 안강최라고 했던가 민강최라고 했던가? 나는 강씨고 어머니가 최씨니 강한 고집 유전자가 그대로 나에게 전수됐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고집은 꺾을 수가 없고 그냥 그런 척 오늘도 남쪽 하늘만 바라본다.

"최씨 얹은 자리엔 풀도 안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최씨 얹은 자리엔 김치나고 굴비나고 참게 난다."

시산제

일요일 북한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족두리봉 길목은 정체를 빚기도 했지. 그러나 어쩔겨. 오지 말라고 안 올 사람들도 아니고 예전처럼 입장료 1600원 받으면 덜 올까. 향로봉 밑 양지 바른 곳에서는 “앵초 동창회 산악회 시산제”가 떠들썩 했쥬. 앵동인가 앵남인가 앵등포인가 아무튼 초딩 동창들의 산신제의 시루떡 고물이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찌꺼기 떨어졌어.

시산제를 끝내고 난 초딩 동창들. 장수에 도전하는 국순당 막걸리 잔뜩 마시고 온갖 이야기 나누고 이젠 다시 오후 산 길 나서야 할 때. 남 녀 불문하고 산에다가 세금 바친다고 여기저기 구석진 곳 찾아서 갈기고 거름을 줬지.

남자 동창 하나는 멀리 숲속을 헤매다 깎아 지른 절벽에서 아래를 향해 힘껏 힘을 주었다. 3월 말 이른 생강 나무 노란 꽃이 피어있는 그곳에 누리끼리한 폭포수가 되어 떨어졌어.

지난 겨우내 꿀기만 했던 배고픈 벌 한 마리가 생강나무 노란 꽃에서 열심히 아직 차지 않는 꿀과 향기를 즐기고 있는데 별안간 폭포수가 철철 내려오는 게야. 이놈의 성질급한 벌은 잔뜩 열이 났지. “가만 있지 않겠어 점프.” 그리고는 고놈의 거시기에다 옹코로 벌침을 쏘 버렸네

갑자기 남자는 거시기가 그냥 한 주먹이나 돼 버렸지. 그러니까 뭐, 아프지만 힘이 더 용솟음쳐 쫓리기가 더 쫓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하산주 해산주 노래방 풀코스에 옛사랑 순이와 불광동 모텔에서 샤워를 찌하게 했어. 그날따라 순이는 평소답지 않게 엄청 좋아했어. 까무라칠 정도가 되겨. 폭포수가 되어 넘친겨.

순이는 “아, 어찌 맛이 틀린디?” 하며 앤에게 사정을 묻자 벌이 싸서 그런다.” 고 하니까 동창은 속으로 “봉침이 좋긴 좋다야. 널도 가서 한 번 더 씌야지.”

그날 밤 마눌 옆에서 자는디 새벽 즈음 술도 깨고 일찍 눈이 떠졌어. 그런데 아랫도리가 막 가렵고 엄청 시려운거야. “여보 마눌아 내가 낮에 동창들하고 산에가서 오줌을 누는데 벌이 와서 쏘더니만 거시기가 엄청 붓고 가렵고 미치고 환장하긔네.”

마눌은 밤새 얼음 주머니 만들어 거시기에 찜질하고 아까쟁기 옥도정기 중국서 건네온 호랑이 피부약 다 발라가며 산신령께 빌었어. “지발 우리 거시기 염증 나지말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십시오. 아멘.

대보름

” 대보름이란다. 어린시절 이맘때면 아이들은 불놀이 하려고 그 귀하디 귀한 통조림 빈 깡통을 찾아 헤맸다. 건넌들 이웃 마을 아이들과의 불놀이 세력 싸움이 닥쳤으니 모다들 미친듯이 헤맸다.

마을앞 겨울 논에서는 두 마을 수 많은 불깡통이 밤하늘에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았고 불구멍 송송 그제 없는 아이들은 돌을 던져 투석전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러다 박 터지면 된장 바르고...

밤 늦도록 밀고 쫓기기를 거듭하다보면 배가 고파지니 얼른 집으로 달려가 찰밥에다 김치 한가닥 걸쳐 먹고서 다시 또 전장에 나섰다.

대보름날 아침 해가 뜨기전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워~"를 먼저 외쳐 더위를 팔았고 귀밝이 술은 어린애라고 손사레쳤다..

오곡밥 찰진밥에 아홉가지 나물은 고춧가루를 쓰지 않은것으로 장만했으나 고사리가 제일 기억에 남고 부럼은 감히 엄두도 내지못할 궁색한 찌든 살림이지만 그래도 즐겁기만 했다.

요즘 애들은 대보름 놀이 고사하고 컴퓨터에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놀이를 즐기며 연아 구경하고 부럼 검색하다 묘한 낚시질만 한다.

10대 여자는 호도라. 까기도 힘 들고..먹을 것도 없으니까...

20대 여자는 밤이라. 날밤으로 먹어도 맛 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고렘 땅콩은 30대 여자일까나?

입춘대길

대보름몇해전이던가?

2월로 접어들자 마자 입춘이 달력에서 툭 튀어나올 무렵.

나는 들보를 영상에 담아야 하는 티비 방송 기자였다.

그러나 찬바람이 생생 불고 황량한 겨울에 어디에서 입춘.

어떻게 봄이 오는 소리를 담으란 말인가?

지금이사 인터넷의 젊은 사람들이 프레쉬를 만들어 입춘 기분을 내고 입춘대길이란 글자도 멋드러지게 디자인 할 수 있지만 그때야...

남녘 전라도에 근무하는 나말고는 전국에서 추운 겨울날 입춘을 영상에 담는 작업이란 실상 하기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 팀을 이끌고 전남도내 곳곳을 누벼 입춘 영상을 담기로 결심하고는 무척이나 갑갑했다.

어디에서 무엇을 담으리요?

그래서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생각해 낸것이 사람 동원.

어린이 합창단을 관리하는 피디에게 연락해서 4-5학년 여자 다섯만 꺾주라.

한복 곱게 입고 나오라고 허라.

그래서 그들을 부랴부랴 동원해 찾아간곳이 송정리 비행장 옆의 뚝방.

그곳에서 한복입은 어린이들 풀어 칼로 썩개는 시늉을 해 봄이 왔노라고 멋지게 뉴스 한쪽지를 만들어 높은 사람 보여주니까 9시 뉴스감이라고...

로컬 뉴스로 쓰고 그 다음 서울로 쏘아올린 내 작품은 그날 9시 뉴스에 방영되었다.

고려자 전국에서 나의 팬들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데 의견이 반반씩 엇갈린다.

좋은 영상 보여주어서 고맙다가 반.

뉴스에 연출이 뭐냐.고건 사깃군들의 행태다가 반.

나는 아뭏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기로 해 다음해에는 절대 연출해 사기 뉴스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주일 후 싹비 우수.

또다시 썩 개는거 허기는 뭐하고 이번에는 무등산의 얼음이 녹아 내리는 것을 주제로 삼았는데 그림이 턱도 없이 모자랐다.

그래서 지난 경험에 비난 아랑곳 하지않고 이번에는 태평양화학에 전화해 이쁜 아가씨 둘이만 곱게 한복으로 동원해주라고..

이들을 데리고 무등산 계곡에서 버들강아지 들고 연출해 또 아홉시 뉴스.

어쨌든 그때 동원된 아가씨는 어린이 합창단을 동원해준 피디에게 시집가고...

해마다 입춘과 우수면 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 지으며 농가열령가 정월령을 읊는다.

정월은 이른 봄이니 입춘 우수 절기로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눈과 얼음 남았으나 평야 마을 넓은 들은 풍경이 바뀌도다 어와! 우리 임금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겨 농사에 힘쓰라는 간절한 교서를 온 나라에 널리 퍼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모른다 해도 네 몸을 돌본다고 임금 뜻을 어길소냐 논과 밭을 서로 나눠(힘을 합쳐) 있는 힘 다하리라. 일 년 풍흉은 미리 알지 못하여도 있는 정성을 다하면 하늘 재앙 벗어나니 모두모두 노력하여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일 년 농사는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봄에 만일 때 놓치면 한 해 농사 망치니 농기구 정비하고 일할 소도 보살피고 재거름 재워 놓고 한 쪽으로 실어 내어 보리밭에 오줌 주기 작년보다 힘써 해라 늙은이 힘이 부쳐 힘든 일 못하여도 낮에는 이엉 엮고 밤에는 새끼 꼬아 때맞게 집 이으면 큰 근심 덜리로다. 과일 나무 버긔 깎고 가지 사이 돌 끼우기 초하루 새벽에 시험 삼아 하여 보자 며느리 잊지 말고 좋은 술 밭 하여라 온갖 꽃이 피어 나면 꽃밭에서 취하여 보자 정월 보름달 보고 가뭄 장마 안다 하니 늙은 농부 경험으로 대강은 짐작한다

새해 세배함은 인정 많고 좋은 풍속이니 새 옷 차려 입고 친척 이웃 서로 찾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삼삼 오오 다닐 적에 와삭 버석 울긋불긋 옷 차림이 선드러진다. 사내아이 연 날리기 계집아이 널뛰기요 윷놀이 내기 하니 소년들 놀이로다. 사당에 세배 하니 떡국에 술 과일이구나 움파와 미나리를 무덤에 곁들이면 보기에 싱싱하여 오신채가 부러우랴 보름날 먹는 약밥 신라에서 온 것이다. 묵은 산나물 삶아 내니 고기맛에 비길소냐 귀 밝히는 약술이며 부스를 삭히는 생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햇불 놓기 내려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구나.

산

"종술이 거 영광 촌놈이 우찌다 해품달을 품어서 경사났는데 그거 엄청 복잡하것드라야."
"은행 지점장 하던 놈들이 질 먼저 옷벗고 나오지만 가들은 부도 회사 관리로 다시 가쥬"

이놈의 봄은 얼마나 더디오는지 댄스 스텝으로 오는지 느리다. 네명의 중년 사내들은 우이동 그린파크에 모여 오늘날 두번째 봄이 오는 삼각산을 땀을 흘리며 오르고 있다. 그러나 숨을 할딱 거리면서도 언제나 친구들 점호는 끝이 없다. 그새 채장암으로 죽은 애를 비롯 하나하나 점검 중 봉우리 밑 암벽에 다다랐다.

추락 위험이고 나발이고 가장 먼저 바위를 타고 깡충 뛰어 오르는 역시 돌보아야할 식솔이 없는 초로의 총각 놈. 그뒤로 삼각산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남들 교회 가는 날에 맞춰 일주일 두번을 고수하고 있는 고교 교사가 섰으며 세번째 사내는 잔뜩 겁에 질려 올라갈까를 망설이고 네번째 사내는 그 뒤에서 저게 어떻게 생긴 바위길이기엔 망설이나 가늠해 보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야 망설이지 말고 단숨에 올라와 뿌러라야, 별로 위험하지도 않구마."
"임마 니는 총각잉께 고라제 나사 여기서 떨어지면 딸린 식구가 몇인디야?"
"그라지 말고야 자 내가 여기 한손을 나무를 붙들고 오른손을 내밀테니 잡고 올라와라야"

아뿔튼 맨위에 놈 맨 뒤에 놈은 가운데 두 사내의 아슬아슬한 묘기를 구경하다가 단숨에 끝나버린 세번째 사내의 상승을 축하한다.

"봐라 별거 아나잔냐?"
"그래도 조심해야제 삼각산에서 한해 추락 사고가 암만암만인디..."

그러자 네번째 사내도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가쁜이 손을 잡고 오른다. 하기사 저 아래를 보면 우이동 부산한 길과 자동차와 집들이 내려다 보이는 천길 낭떠러지. 그러나 이어 능선 고갯마루가지는 또 한고비가 있다. 이번에는 찹싸게 바위를 가로지른 나무를 잡고 한박자 쉬고 바위 틈을 오르는 코스. 세번째 사내가 꺽충 이제는 탄력을 받아 잘도 오르는데 이번에는 네번째 사내가 겁 먹는다.

"야 우선 이 배낭 좀 받아줘라. 술 욕심은 많아서 막걸리를 네병씩이나 쑤셔 넣었더니 겁나게 무거워야"
"공짜라고 막 집어 넣으니까 그렇지 체면도 뒤통도 모두 내뿔려 버렸냐?"
"가만히 생각해 봉께 이 무게로 인하여 뒤에서 배낭 귀신이 잡아당겨 내가 추락할 것 간단말여"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메지 않고 앞장 서간 총각놈에게 막걸리 배낭을 맡기고서 나무를 힘주어 잡고서 조심조심 코끼리봉 능선에 올랐다.

"야 아까 오전에 지나간 길이 여긴디 우리가 저 아래 절 옆 난길로 왔으면 안전하게 오는건디."
"그려 초행길 길을 모르면 무조건 사람들 많이 다닌길로 골라 다녀야지야"
"아까 우리가 절 옆으로 돌아 왔으면 됐는데 절뒤로 수직 상승하는 통에 암벽 등반 했디."
"아물든 아래 쳐다보지 말아야해 현기증 나서 겁먹으면 산행은 끝이다."

네명다 한마디씩 지껄이며 언제 그런 고난이 있었느냐 잊은채 모자봉으로 향한다. 모자봉 넓다란 바위위에 앉아서 막걸리를 따르고 고사리며 시금치며 안주를 두손으로 집게한다.

"가만히 봉께 여기는 등산객도 없고 조용하고 좋다야."
"그러면 우리가 이쪽 봉우리마다 탐색하고 해지기 전에 저기 송추 계곡으로 내려가 볼꼬나?"
"아물든 오늘 겁나게 좋은 등산 하굿다야 나도 이 코스를 타보고 싶었는디야 딱 걸렸다."

아물든 봉우리 마다 너럭바위에 걸터 앉아 막걸리 한잔 하고 얼큰해지면 이놈 두놈이 저기 능선을 바라다 보면서 열심히 싸움질이다.

"저기가 자운봉이고 만장봉이고 성인봉 주봉이닷"
"아녀야 거기가 아니라 그 너머 저기 아스라이 보이는것이 만장봉 같은디"

우라질 그 산위에 봉우리 위에 이름 써진것도 아니고 두 사내의 우김질에는 끝도 없다. 그러자 교사가 드터 비장의 무기인 지도를 꺼내드는데 지도와 실물 봉우리와 연관지를 확신이 없어 별 소용없다. 네번째 사내가 보기에는 모두 막걸리봉 같은데 저놈들은 뭘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저 두놈은 오늘도 만나자 마자 중학교 입학때 턱걸이 체력 시험이 6번이었는데 7번이었는데가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봉우리를 지나 내려오는데 이걸 저기 향로봉이나 비봉 바윗길같이 험악하다. 조심조심 밭줄도 잡았다가 엉금엉금 기기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 무섭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네명이나 되니까 나 추락해도 얼릉 헬기 불러 병원에 데려다 눕혀 주겠지.

"맞어 산에 혼자 오면 그게 제일 걱정된다. 나 혼자 이런 바위 오르다가 내려가다가 떨어지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기 보이는게 전부다 상계동 아파트 촌 같은데 겁먹은 놈들은 꼭 아래를 보거든"

우리들 세상이었다. 네 사내는 가끔 지나치는 작전 구역 표시와 방커에 요 아래 어드메쯤 군인들의 검문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나 하고 걱정도 해본다.

"김신존가 하는 간첩 일당이 저쪽 사모바위에서 모이기로 한것이 우리 국민학교때냐?"

"그 무렵일걸 우리 국민학교 입학 즈음...그리고 실미도가 유명해 졌으께..."

아침의 혼란에 비해 네 사내의 엄청나게 고요한 산행은 저쪽 산의 해가 붉은 선혈을 토할때 마지막 막걸리 봉에서 찢한 국물을 모두 비우고 차곡차곡 세어보니 빈 플라스틱 통이 모두 8봉. 시골 고등학교 동창회 서울 사람들 2백여명이 모여 줄지어 산을 올라 오후 1시까지 헤매다가 하산했었다. 산아래 평지에 모두들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 잔 돌아갈때 동창회 새회장 각오가 마이크를 타고 끝내는 노래자랑으로 산을 찌렁저렁 올릴때 누군가가 벌떡 일어서며

"야 가자. 인자 2시50분인데 우리는 다시 저 산넘어 등반이나 하자."

"갈사람 막걸리 배낭에 좀 뺑방하게 챙기고 안주도 좀 준비해가자."

"그래 우리 한바퀴 횡 더돌고 집에 들어가자야. 여기 있으면 막걸리 밖에 더 먹냐?"

여기서 시작한 네 사내의 '한바퀴 더'는 연신내 역에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 돼지머리에 또 그만큼 막걸리봉을 쌓고서야 끝났다.

옥수수 빵

서식 <http://blog.daum.net/mnbc> 블로그

강나루 저자

2012.03.20 23:18:15 발행일

 블로그